

디지털경제 관련 통계작성기법 정책연수

2004. 6. 8 ~ 6. 19

주 관 : 중앙인사위원회 능력발전과

참가기관 : 산업자원부, 통계청, 행정자치부

목 차

I. 정책연수 개요

- 1. 연수목적 및 방향 2
- 2. 연수일정 및 방문기관 2

II. 주요 발표 및 토의자료 (요약)

- 1. 영국의 정보사회 측정 (ONS) 6
- 2. 전자상거래 국제 벤치마킹 (DTI) 30
- 3. 스위스의 정보사회통계 (SFSSO) 48
- 4. 국제 디지털경제 통계현황 (ITU) 62
- 5.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WIPO) 80
- 6.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 (WTO) 86
- 7. 한국의 디지털경제통계 (정책연수단) 96

III. 연수 후기 112

IV. 참고자료 (토의·발표 영문자료)

- 1. Digital Economy Statistics in Korea 167
- 2. Information Technology in Society & Economy 193
- 3. Business use of ICTs in UK 227
- 4. ITU statistical activities 239
- 5. Indicators on the Swiss information society 264



I . 정책연수 개요

I. 정책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신경제) 관련 통계/정책/제도에 관한 선진국의 최신 정보와 추진실태를 수집·분석하고,
- 디지털경제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정보의 생산/제공에 관한 정보를 조사·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 관련제도의 발전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시 반영

2. 연수일정 및 방문기관

□ 연수 일정

- 훈련국가 : 영국, 스위스
- 훈련기간 : 2004. 6. 8 ~ 2004. 6. 19(12일간)
- 훈련대상기관 및 인원 : 3개 기관 12명
 - 산업자원부, 통계청, 행정자치부
- 방문기관
 - 영 국
 -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스위스
 - 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세계무역기구(WTO)

□ 방문기관별 세부 일정

월 일	국 가	방 문 기 관	연수 및 토의 내용
6. 9(수)	영국	DTI (무역산업부 전자상거래과)	○ 전자상거래 국제벤치마킹 (IBS) ○ 한국의 디지털경제 통계
6.10(목)	영국	ONS (통계청)	○ 영국의 정보사회 측정 ○ 한국의 디지털경제 통계
6.11(금)	영국	DTI (무역산업부 정보경제과)	○ 영국의 신경제통계
6.14(월)	스위스	SFSO (통계청)	○ 스위스의 정보사회지표 ○ 한국의 디지털경제 통계
6.15(화)	스위스	WIPO (세계지적재산권 기구)	○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 한국의 디지털경제 통계
6.16(수)	스위스	WTO (세계무역협회)	○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 ○ 한국의 디지털경제 통계
6.17(목)	스위스	ITU (국제통신연합)	○ 국제ICT 통계현황 ○ 한국의 디지털경제 통계

○ 업무수행 방식

- 연수단이 준비한 질의서에 의해 단편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 연수단과 방문기관이 상호 사전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프리젠테이션 후 토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방문목적을 원활하게 달성

□ 정책연수단 명단

연번	부처명	소 속	성 명	연락처	비 고
1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김 재은	02)2110-5154	
2		산업구조과	박 현중	02)2110-5163	
3		산업환경과	이 용희	02)2110-5133	
4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김 현중	042)481-2181	
5			서 찬일	042)481-2195	
6			송 금영	042)481-2190	
7			류 창진	042)481-2194	
8		산업통계과	예 상해	042)481-2145	
9		통계연구과	김 한식	042)481-2575	
10		서울통계사무소	김 태영	02)3444-4981	
11		경기통계사무소	변 효섭	031)232-6440	
12	행정자치부	혁신담당관실	조 용건	02)3703-4338	

II. 주요 발표 및 토의자료

Ⅱ. 주요 발표 및 토의자료 (요약)

1. 영국의 정보사회 측정

가. 연수 개요



<사진1 영국 ONS에서 영한 디지털경제통계 양자간 회의를 마치고>

- o 일 시 : 2004. 6. 10 (수), 09:00~12:45
- o 장 소 : Room 5, Lower Ground Floor, ONS,
1 Drummond Gate, London SW1V 2QQ
- o ONS 측 참석자
 - Mr. John Pullinger
(Executive Director, Social & Economic Reporting)
 - Dr. Tony Clayton (Head, New Economy Branch)
 - Mr. Chris Randall (e-society Branch)

- Mr. Cecil Prescott (e-commerce Branch)
- Mr. Peter Goodridge (New Economy Branch)
- Ms. Amanda Charles (International Branch)

나. 영국통계청 소개

(1) 일반현황

- o 영국의 통계제도는 혼합형에 속하는데, 분산화된 정부통계기구 (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GSS)에서 대부분의 공식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o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al, ONS)은 정부통계기구 업무 조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로, 그 의장은 정부통계기구의장이 겸하도록 되어 있음.
- o 통계청은 1996년 중앙통계국(Central Statistical Office, CSO)과 인구총조사국(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OPCS)의 합병으로 탄생하였으며,
 - 정부통계의 일관성(Coherence) 및 적합성(Compatibility)에 대한 폭넓은 수요에 대응하고, 통계자료 제공을 개선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조직개편은 영국의 통계체제가 분산형 체제에서 집중형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의미함.
- o 영국 통계제도에 관한 공식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부통계기구 업무 중 상당부분은 의회승인 법률에 의해 조정되고 있음. 이러한 개별 법령의 대표적인 예로는 총조사법, 인구통계법, 무역통계법, 농업통계법 등을 들 수 있음.

(2) 통계조직의 운영

(가) 조직 및 인력

- 영국 정부통계기구의 조직과 인력은 여러 정부부처 · 기관, 관련기구 등에 분포되어 있음. 이와 같은 분산형 구조는 정부정책의 형성 · 감독에 있어서 통계분석자료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통계인력과 정책담당 인력간 협력을 가능하게 함.
- 영국 통계청 통계인력은 2004년 기준 평균 3,800명 (part-time 제외)이며, 그 외 여타 부처에 소속된 통계인력은 대략 1,500명에 달하고 있음.
- 이밖에도 정부통계기구와 긴밀한 협조 하에 별도의 통계인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 영국 지질학 조사(British Geological Survey)
 - Building Societies Commission
 - 민간항공 당국(Civil Aviation Authority)
 - 에너지기술 보조기구(Energy Technology Support Unit)
 - 잉글랜드지역 보건당국(English Regional Health Authorities)
 - 균등기회를 위한 협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 중등교육 기금 위원회(Furt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 잉글랜드 고등교육 기금위원회(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 하원도서관(House of Commons Library)
- 국립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북아일랜드 부처(Northern Ireland Department)
- 자선단체 등기소(Registry of Friendly Societies)
- 스코틀랜드 의료서비스, 정보·통계과



<사진2 영국 ONS의 조직과 작성통계 설명>

(나) 작성 통계

		우선 작성대상 (High Profile Outputs)	정규통계 (Routine Outputs)
		생산지수 생산자 물가	엔지니어링 거래 및 주문 자동차생산 · 신규등록

월별	사업체	도매업판매지수 자동차 생산	생산자물가지수 도매업판매 비용계상을 위한 가격지수 숫자 항공 및 전자비용 지수
	경제	경상수지 공공부문 차입조건 도매물가지수	경제 추세 금융통계 대외교역에 대한 월간점검 통계 도매물가지수
	사회·경제 인구·보건	통합 노동시장 통계 해외 여행 및 관광	노동시장 추세
		주간 사망지수	
	일반		월간 주요 통계 발췌(Digest)
분기별	사업체	UK기업 관련 취득·합병 (Acquisitions and Mergers)	GB 영화전시 상품판매 및 교역보고 종합금융회사 및 기타 소비자금 금융업체 자산·부채 보험회사 및 사영 연금기금 투자
	경제	국제수지 GDP추세 분기별 국민계정 UK 산출, 소득 및 지출 자본 지출(최종) 자본 지출(임시) Maastricht협정 기관투자 아래 재정적자 및 국채 주식(최종) 주식(임시)	소비자 추세 UK 경제계정 해외무역의 산업별 분석
	사회경제		해외여행 및 관광 경제활동인구 분기별 보충조사
	인구보건	합법적 인공유산	인구추세 합법적 인공유산

		우선 작성대상 (High Profile Outputs)	정규통계 (Routine Outputs)
연간	사업체	사기업체 R&D R&D에 대한 총 국내지출	생산 및 건설 문의 상품 지수 신규 수입조사 TV 및 영화 해외수입 UK 사업체 R&D 휴 광물 추출 해외직접투자 부문별 리뷰보고서 생산자 판매 및 교역보고서
	경제		경제추세 연간 보충조사 UK 투입 · 산출 균형 UK 국제수지 UK 국민계정
	사회 · 경제		연간 통계개괄 연간 고용조사 Britain 통계연감 가구지출 주요데이터 지역추세 사회적 추세 여행 추세
연간	인구 · 보건	합버적 인공유산 출생 암 등록 사망률 통계 임신 사망(모든 연령: 유아; 주산기 사망) 결혼 및 이혼 선거통계(UK) 국제 이동(UK)	인공유산 출산 암등록 선천적 기형 선거통계 국제 인구이동(UK) 주요 인구 및 인구통계 혼인 및 이혼 사망 - 원인 사망 - 유아

		인구 추계(Estimates) 인구 예측(Projections) 유아 돌연사	사망 - 일반/지역 사망 - 부상 및 독살
	인구 · 보건		인구 예측 - 전국; 지역; 보건지역

(다) Feedback 및 독립성 유지 문제

- 정부통계기구 위원회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활동을 공식 조정하고 있음. 정책·운영위원회(Policy and Management Committee)의 경우 정부통계기구 장이 그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각 부처에 소속된 정부통계기구 고위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이외에도 9개의 하위 위원회들이 각 부처에서 정부통계기구 설립 기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음 분야의 위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정보시스템
 - 정보 보급
 - 경제통계
 - 사회 통계
 - 방법론(methodology)
- 그 외에도 통계자문위원회(Statistics Advisory Committee, SAC) 등 공식통계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자문기구들이 활동하고 있음.
- 통계자문위원회는 정부통계기구 의장에게 국립통계청의 통계업무, 연간 사업목표 그리고 기타 정부통계기구 의장직위에 포함된 책임들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함.

- 그 구성은 고객(통계정보 수요자), 정보 공급자 및 적절한 지식을 갖춘 기타 인사들로 이루어짐.
- 정부통계기구 의장은 제공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적인 전문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공식통계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등을 그 책임으로 한다. 정부통계기구 의장은 또한 공식통계의 온전성 및 타당성(integrity and validity)과 국민 신뢰에 관하여 영국 총리에게 직접 조언을 할 수 있는 정부의 통계담당 최고위원(government's chief advisor on statistics)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ONS 내의 몇몇 기능들은 기획, 정책, 인사, 교육훈련, 국제협력, 통계 방법론(statistics methods), 계산(computing), 조사 통제(survey control), 마케팅 그리고 고객서비스 등의 업무에 있어서 정부통계기구 의장을 보조하고 있음.

다. 주요 발표 및 토의 내용

(가) 영국의 정보사회통계 개발 아젠다

- 영국은 정보사회통계 개발을 위하여 아래의 7개 요소를 포함한 아젠다를 설정하였음
 - 측정 프레임워크
 - 경제에서의 ICT (정보통신기술, 산출, 투자 및 이용)
 - 정보사회의 측정 (개인 및 가구)
 -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의 측정
 - 정책 평가
 - 국제 벤치마킹
 - 기업의 생산성



<사진3 ONS의 정보사회통계 개발 아젠다>

(나) 영국통계청(ONS)의 정보사회통계

① 영국통계청의 측정목표

- 영국통계청에서는 가구(개인), 기업, 국민계정 및 신경계분석 등 디지털경제 관련 4개 분야의 통계작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보사회와 시민 부문
 - 가구 및 개인의 이용, 태도, 행위

- 정보기술과 기업 부문
 - 기업의 ICT 이용, 전자상거래 및 e-비즈니스
 - ISP와의 연계성
- 국민계정에서의 ICT 부문
 - 공급자 측면의 ICT
 - 이용현황표 및 투자
 - ICT 관련지표 (산출, 물가 등)
- ‘신경제’ 분석
 - 국제비교 및 벤치마킹
 - e-비즈니스 행위, 무형자산

② ‘정보경제=신경제’ 논란

- 시장영역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제품/서비스 액세스, 상호작용 및 운영프로세스의 변화, 고객/공급자 관계의 재정의 등의 이슈로 정보경제가 신경제인가를 검증하려는 노력이 있음
- 시장영역의 급격한 변화
 - 구매자 및 판매자의 글로벌화
 - ‘지역시장’은 더 이상 ‘틈새시장’이 될 수 없음
- 새로운 제품/서비스 액세스
 - 특히 전자배송
- 상호작용 및 운영프로세스의 변화
 - 기업 내부 및 기업간
 - 마케팅과 이노베이션
- 고객/공급자 관계의 재정의
 - 균형력의 변화

③ 정보경제의 측정 프레임워크

○ 정보경제의 측정 프레임워크는 다음 3개 항목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인프라스트럭처
- 투입/산출
- 영향도 (태도/성취)

○ 인프라스트럭처와 측정 이슈

- IT 하드웨어 투자
 - 급속하게 하락하는 가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CT 하드웨어 투자
 - 컴퓨터 매개 통신망'에 얼마나 더 할 것인가?
- 컴퓨터 서비스의 측정
 - 정의 문제, 카테고리의 변화문제
- 소프트웨어 투자
 - 내부/외부 비용소요액
 - 어디까지를 '자본'으로 볼 것인가?

○ ICT 산출과 측정 이슈

- 제조업 vs 서비스산업의 ICT 부가가치
- 서비스산업의 ICT 부가가치
 - 유통 vs 통신 vs 컴퓨터서비스
- 컴퓨터 서비스 - 판매 (유형별)
- IT 컨설팅, 설비운영, 시스템 통합, 시스템 서포트, 하드웨어 유지정비 등

○ ICT 투자 믹스

- ICT의 총고정자본형성
- 사무용 기기 및 컴퓨터, 기타 ICT, 통신 및 컴퓨터서비스
- o ICT 투자 부문
 - 컴퓨터 및 컴퓨터 서비스 부문 총고정자본 형성
 - 1차, 제조업, 유틸리티, 건설, 유통, 호텔 등, 운수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공공 및 기타서비스

④ 정보사회의 측정에 관한 통계조사 소개

- o 현재 영국 통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부문, 기업체 부문 및 전자상거래 관련조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음
- o 가구·지출·음식물 부문 조사
 - 표본규모 : 매분기 1,700 가구
 - 연혁 : 1998
 - 주요지표 :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률
- o 개인에 대한 조사 부문
 - 통계청의 omnibus 조사
 - 연혁 : 2000 (표본규모 : 16세 이상 성인 1,800명)
 - 연 4회 ICT 모듈 조사
 - 주요 조사항목
 - ICT 장비보유 현황 (가정용 PC 및 DTV 포함)
 - 인터넷 접근 (초고속통신망 포함)
 -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시간
 - 인터넷 이용 장비 및 장소

- 인터넷 이용목적 (전자정부 포함)
 - 인터넷 쇼핑
 -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 향후 이용계획
- 기업체부문에 대한 조사의 개발
- 1회 조사 (2000년 기준)
 - 표본규모 : 종업원 10인 이상 9000 기업체
 - 포괄범위 : 대부분의 경제
 - 원래 전자상거래에 초점
 - 최소 확인
 - 2001년 조사 : 표본규모 증가
 - 표본규모 : 종업원 0-9 기업체 3000 추가
 - ICT이용으로 초점 확대
 - 신기술 및 비즈니스과정 통합에 관한 설문
 - 금융 부문
 - 전자상거래액 정의가 어려움
 - 2001 전자상거래 조사부터 금융부문의 금액 부문 제외
 - Eurostat의 금융부문 시험설문
 - 2003 조사 진행 중
 - 개선된 설문지
 - 금융부문의 ICT 활용 항목 축소
 - 2004 가을 공표 예정
 - 자료배부 (현행)

- 요약 및 결과표 웹사이트 게재
- 최초 공표 : 2003. 12월로 일시중지
- 다른 ons 출판에의 input : 예컨대 Social Trend (사회경향)

○ 향후계획

- ICT 활용에 관한 가구조사 (Eurostat)
- 디지털 포함에 관한 분석 (OeE)
- 웹사이트에 출판하는데 초점

⑤ 기업체조사 자료의 품질 점검 관련사항

- 현재 종합적인 확인작업 진행 중
- 몇몇 설문/개념은 정의하기 어려움
- 몇 가지 결과는 조사항목 변경으로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
- 전자상거래는 실제 금액 보다는 비율(퍼센트)로 조사
- 기업체에서는 종종 추정치/추측치 제공, 예컨대 5%, 10% 등
- 장기적으로는 금액조사를 고려?

○ 인터넷연결 지수 관련사항

-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월간조사
- 연결방식에 변화
- 초기에는 ‘다이얼-업’ 방식이 증가세를 주도
- 현재는 초고속통신망이 성장을 주도
(2001년 1월에 1%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약 25% 수준)

⑥ 정책목표를 위한 측정체계

- ICT가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지?
- 인프라

- 기술, 투자, 규제체계
- 준비도
 - 태도, 조직
- 활용도
 - 액세스 및 최초 채택
- 영향도
 - 기업/가구/정부의 행동양식 변경

⑦ 디지털경제의 벤치마킹 체계

- 표준화된 벤치마킹
 - 준비도-활용-영향도 체계
- 정책의 초점
 - 각 분야의 주도국/선도국 식별
 - 환경요소 고려
 - 성공적인 정책 식별
- 전자정부에 대한 복합 성취지수

⑧ 영국의 2002년 디지털 경제 프로필

- 강점
 - 시장환경, 규제환경, 기업 준비도, 정부의 준비도
- 취약점
 - 국민의 수용, 정부의 수용
- 기업/국민/정부의 메트릭스 검토
 - 인프라, 준비도, 활용도, 영향도
 - 120개의 변수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가?

- 현재 50%가 ‘국가통계‘임, 영향도
- 9개국을 포괄 : G7 + 호주/스웨덴
- 2005년 포괄범위 확대 도모
- 2002 조사결과 : www.statistics.gov.uk
- 전자상거래 국제 벤치마킹 자료

⑨ 기업의 영향도 측정

- ICT 투자는 가치가 있는가?
- 거시적 영향도, 긍정적이지만 불확실
 - 전자상거래액은 GDP의 2%
 - 기술의 생산성은 모든 성장요인을 제하고 남아있는 부문
- 미시적 접근, 더욱 집중된 방식
 - 개별 기업에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식별
 - ICT/e-비즈니스 활용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기본 모형의 필요성, 증거와 함께
 - 기업 단계에서의 성과가 분명하지 않다면, 왜 국민계정에서 ICT가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

⑩조사자료를 이용한 접근 분석

- 채택
 - 전자상거래 자료의 이용, 기술의 이용과 전자상거래/프로세스의 관계 이해
- 생산성과 혁신효과
 - 컴퓨터 네트워크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효율과 성과에 고려
- 시장효과
 - 전자네트웍의 이용이 구매자/판매자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 연결된 조사자료

- 연구 프로그램의 중심

○ 2004년 6월 현재 연결자료 현황

- 연간 사업체조사 (1994-) : 부가가치, 인력
- 지역혁신조사 (1996,2000) : 혁신, R&D
- 전자상거래 조사 (2000-) : ICT 이용,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 외국직접투자 조사 (1994-) : 국제적 연결
- 기업체 R&D 조사 (1994-) : R&D 비용과 기금
- 투자조사 (1998-) : 자본소비, ICT
- 신소득 조사 (1994-) : 급여, 직업
- 종업원 기술 조사 (1997-) 자격, 조직

○ 생산성 증가 관련사항

- 전자조달은 ‘승리를 얻게 하는 적용임’
- 전자구매 : 39, 전자판매 : 30, 비전자상거래 : 30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가격 효과

- 기계분야에서의 경향

○ 생산성 세부자료 (1)

- 제조업 부문에서는 유사한 효과

○ 생산성 세부자료 (2)

-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달리 나타나고 있음

○ e-비즈니스는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value-chain 모델)

○ ICT 이용의 효과

- 전체 성과 및 비즈니스 과정
- 현행 분석작업의 초점
 - ICT 투자의 생산성 효과
 - 물류/재고와 연계된 e-비즈니스 효과
 - 혁신 및 기업내부 협업

현재까지 3개 중 2개의 효과가 현저함

○ 혁신이 성장을 주도 효과

- 상대적 기업혁신 vs 상대적 성장, 전산업
 - ICT 이용이 혁신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평균 이상 : 0.08, 평균 이하 : 0.028, 없음 : 0

○ 측정과 분석 : 2004 우선 작업

- 제4회 전자상거래 조사
 - e-비즈니스 프로세스 포함
 - 전자금융 부문 시험조사
- 가구에서의 이용
 - 소비형태와 경제에 대한 함축 측정
- ICT 투자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부문 측정
- ICT 소프트웨어
 -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자상거래의 영향도
 - ICT 투자와 e-비즈니스 활용의 효과
 - 혁신과의 관계

⑪ EU의 정보사회 측정노력

- o Eurostat 는 EU 전체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및 ICT의 준비, 확산, 영향 등을 측정하고 있음
 - e-유럽 벤치마킹 지표
 - 유럽의회는 ICT 법규 통과
 - 2005년 기준조사 시행
 - 과거의 설문은 고객/자료이용자
 - Eurostat 설문은 향후 설문의 기초가 될 예정



<사진4 ONS의 신경제통계 소개>

(대) 공식통계와 신경제에 관한 ONS 보고사항 요약

① 배경

- 2002 런던 IAOS회의에서 다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경제활동과 구조에서 ICT로 인한 변화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
 - 변화 이해 증진을 위해 많은 기구에서 진행중인 광범위한 작업

② 범위

- 지식기반 경제와 정보사회
- 서비스생산 측정 등 ICT 이외 정의도 포함(경제구조 변동 반영)

③ 주요 이슈

- (a)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국민계정과 기타 통계의 개정과 확장이 필요한지?
- (b) 신경제와 관련, 사회통계에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 (c) 국제통계계의 현 장치가 신경제 측정 의제 진행에 적절한가?
- (d) 공식통계가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④ 새로운 패러다임

- IT의 변화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생산물과 서비스의 급속한 팽창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행위 및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변화
-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한 통계측정의 개정은 전통적으로 국민계정에서 취약점이었던 서비스생산과 가격분야에서 더 절실
- 지식기반경제의 범위에 속하는 ICT관련 자본형성(소프트웨어 계정, 무형자산범위 확장 등) 등 중요한 영역에 통계수요 존재
- ICT가 근본적인 경제관계를 변화시켰다는 명쾌한 새 이론은 없으나 경제요소간의 행위와 상호작용은 변동시킴
- ICT는 생산과정 투입요소로서 자산의 경제적 특징을 변화시켰음
- 새로운 측정분야는 통신의 급속한 확장효과 평가 분야

- 새로운 구조의 수립이라기보다는 개정과 확장으로 봄
- 이를 위한 미시 경제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것임
- 건강과 보건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측정 패러다임이 필요
 - 투입에 기반한 현재방법은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정보생산 불가
 - 국민계정 등에 산출지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ICT는 한 해결책이 됨
- 공식경제통계 데이터 수집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두개 영역
 - 데이터 수집은 사업조직의 변화, 새로운 데이터 출처와 최신기술을 반영하도록 개발돼야 함
 - 전지구적 기업활동 범위는 데이터 수집에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 ICT는 NSO의 고객혁명을 가져 옴
 - NSO는 훨씬 복잡한 경제, 사회구조 관련 정보를 보급해야 하며 정리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한 데이터는 이제 불충분

⑤ 사회통계 주요이슈

- 개인의 공공서비스 선용과 효과적인 사회활동을 결정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지식의 결합
 - 지식 격차와 디지털/접근 격차 등 불이익 그룹을 확인해야 함
- 통계종사자들이 해야 할 조치(initiative)는
 - 미시데이터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정책과 경제발전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게 하는 데이터 정의와 구조의 일관성 보장
 - 공공분야의 생산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산출관련 공공분야 서비스 측정요구에 대응
- 인적자본의 정의, 측정은 생산성을 이해하고 노동시장의 행태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임
- ICT가 사회적 행동을 변화시키며 시민, 정보, 기업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의 증가로 개인의 시간활용 측정은 점차 중요해 짐
 - 디지털 경제가 가정과 일, 여가와 노동간 경계를 희석



<사진5 ONS에서의 질의응답>

⑥ 국제community와 신경제 측정 의제

- 급격한 통계수요 변화에 따라 국제비교성이 더욱 중요해짐
- 필요한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나 새로운 통계적 접근을 위해 유용한 변화가 무엇인지는 아직 불명확
- 제한적이거나 가능한 두가지 방법은
 - ICT와 정보사회 이슈의 연구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
 - 국제기구들은 회원국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권장되는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연구를 통하여 분명하게 권고해야 함
- NSOs가 자원을 끌어내고 연구과제를 분담하여 전문영역에 집중하여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

- 가격측정, 소프트웨어 계정, 서비스분야 산출액 등은 현행 최선의 사례와 새로운 개념을 교류하는 가운데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함 (방법론, 절차,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 R&D 등 무형자산에 부적합한 1993 SNA의 개정필요가 있으나 개정과정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여 개정 필요
 - 국민계정의 기본적인 기준을 모든 국가가 충족시키도록 하고
 - 확인된 간극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구조를 변화시킴
- 각국 NSO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변화되어야 함
 - 적시 집행, 좋은 사례 교류 이행의 가속화
- 비교성을 개선하기 위한 2007년분류 통합을 위해 국제기구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함

⑦ 공식통계 현안의 우선순위

- 변화절차
 - 경제적인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다음 개선이 필요
 - SNA 개선을 위한 더욱 유연한 제도 : 수렴과 비교성을 위한 더 빈번한 개정;
 - 절차, 연구의제, 개정일정 등에 대한 합의채택을 가속화하고 비교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변동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SNA변화의 초점 확인
 - 공통 방법론과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좋은 통계제도의 확인과 교환에 더 많이 투자
- 측정 방법론
 - 다음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이 가장 시급
 - 시장서비스 : 산출물 측정과 가격 디플레이터 방법론에 대한 합의

- ICT 제품의 품질과 가격설정 측정
- ICT와 S/W자본 측정 방법론, 지식과 기타 무형자산의 처리
- ICT의 접근·수용·영향 및 사업체·가구의 전자네트워크 구축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사회 측정에 더 많이 투자
- 디지털/정보 생산물의 비교성 증진을 위한 2007분류 통합
- 인적자본 및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 질의 측정. 기술, 지식, ICT망에의 접근과 생산성간 연계에 대한 이해 증대
- 투입에서 산출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보건과 교육서비스의 측정
- 생산성 행태와 실적 분석을 위한 비즈니스 미시데이터의 개발
- 시간활용 데이터의 개발
- 불이익집단을 확인하여 정책입안자들을 돕기 위한 지역내 또는 지역간 디지털 격차를 확인하는 방법

o 사례(practice)의 측정

- 경제단체, 사회네트워크는 ICT 이용결과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지만 기술 자체는 많은 해결책을 제시
 - 국가단위 측정으로는 행동이나 실적을 포착할 수 없는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합측정 방식 필요
 - 기업에서 개발한 대규모 DB에서 생산, 가격 등의 데이터 추출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NSOs에서 별 진전이 없었음)

o 배포

-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요에 따라 의사교환과 객관성의 중요성 증가. 인터넷 정보제공에 따라 정보접속 가능성과 설명도 개선 필요
 - 이용자가 신뢰하도록 정의, 통계품질과 비교성에서 최선의 제도를 보장할 수 있게 개념과 메타데이터를 더 밀접하게 융합
 - 새로운 배포기준,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근거 위

주의 정책 감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과 설명을 개선

⑧ 모니터 절차

- 이를 통하여 통계종사자들이 시민, 정책입안자와 기업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음
 - 변화 무시시 공식통계에서 정보경제를 누락할 위험 부담 증가
- 문제의 진척을 위하여 NSOs로부터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

3. 전자상거래 국제벤처마킹 (IBS)

가. 연수 개요



<사진6 DTI 정문에서 연수단일행과 함께>

- 장 소 : Conference room 504, DTI,
15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9SS
- DTI 측 참석자
 - Mr. Mark Carvell (Senior Policy Advisor, Int'l economy policy and Asian Communications Policy)
 - Mr. Terry Noade (Int'l Benchmarking Study)
 - Mr. Ivan Bishop (e-Business statistics)
- 참관 : 주영 대사관 이운호 상무관

나. DTI 조직 소개

(가) 영국 통상산업부 조직현황

① 통상산업부 개요

-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무역/투자진흥 및 통상교섭, 산업, 중소기업, 정보통신, 과학/기술, 에너지, 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건설, 노동기준 등의 분야를 망라하는 명실상부한 실물분야 총괄부처
- 현직 국회의원인 장관(Secretary)과 역시 현직 국회의원인 7명의 차관급 국무상(Minister of State) 및 정무차관(Parliament under Secretary)과 직업공무원인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을 두고 전부처 업무를 관장
 - 무역 및 투자 담당 국무상
 - 에너지 및 건설 담당 국무상

- 전자상거래 및 경쟁력 담당 국무상
 - 고용관계, 산업 및 지역 담당 국무상
 - 중소기업 담당 정무차관
 - 경쟁, 소비자 및 시장 담당 정무차관
 - 과학기술 및 혁신 담당 정무차관
 - 사무차관
- 장관, 국무상, 정무차관 산하에 실단위의 6개 Group과 1개의 Unit,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외무역청(British Trade International), 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 등 보유
- 비즈니스 그룹(Business Group)
 - 혁신 그룹(Innovation Group)
 - 에너지 그룹(Energy Group)
 - 공정시장 그룹(Fair Markets Group)
 - 유럽/세계무역정책(European and World Trade Policy)
 - 서비스 그룹(Service Group)
 - 전략기획 유닛(Strategic Unit)
 -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 대외무역청(British Trade International)
 - 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
- 그밖에 비교적 독립성이 높은 책임운영기관 형태의 특허청, 회사청, 결재청, 무선통신청, 고용심판소, 측정/계량시험소 및 지방조직 등도 통산부 산하에 보유
- 70년 출범이후 수차례에 걸친 행정개혁으로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서로 재편되었으며, 산하 책임운영기관까지 포함 전체 인원은 약 9,500명, 본부만 약 5,000명의 거대부처로 재편

② 영국 통상산업부의 특징

○ 조직의 명시적 목표 설정

- 영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과학기술의 우위확보

○ 산업조직에서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형 조직

- 통산부내 유럽/세계무역정책실에서 양자 및 다자차원의 통상정책 입안 및 교섭활동을 수행(다만 대외교섭의 많은 부분이 암스테르담조약에 의거 EU 집행위에 위임)
- 대외무역청에 무역 및 투자(inward, outward 망라)진흥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집중,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 이러한 산업통상형 조직을 통해 통산부는 소위 산업과 연계된 통상 및 무역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대외무역 및 투자유치활동 등 우리의 코트라에 해당하는 집행부서 기능을 겸함으로써 소위 One Stop, Customer oriented 체제를 구축(우리의 산자부 무역정책국, 국제협력투자국 및 통상교섭본부, 코트라를 모두 통합한 형태)

○ 통산부 산하 과학기술청에서 과학기술 진흥업무를 담당

- 과학기술청은 7개 연구위원회 기금조정, 국제기술협력업무, 과학기술 통계, EU와의 연구프로젝트, 바이오 및 계놈프로젝트 등에 대한 기업지원, 표준업무, 환경산업업무 등을 담당

-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재편(변천역사 참조)
 - 다만,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정부부처 개편이 별도의 정부 조직법 개폐없이 가능(부처 신설 및 폐지 용이)함에 따라 주변 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차이점은 상존

③ 통산부 상위조직(장관, 차관, 실, 국단위까지)

- 통상산업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 무역 및 투자담당 국무장
(Minister of State for Trade and Investment)
 - 대외무역청, 통상정책, 수출신용기관 담당
- 전자상거래 및 경쟁력담당 국무장
(Minister of State for e-Commerce and Competitiveness)
 - 전자상거래, 정보통신산업, 전과관리청, 소비재산업, 우편서비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담당
- 에너지 및 건설담당 국무장
(Minister of State for Energy and Construction)
 - 원자력정책(전력, 핵연료), 석유, 가스, 석탄, LPG, 에너지기술, 에너지관련 규제개혁, 재생에너지, 건설산업 등 담당
- 고용관계, 산업 및 지역담당 국무장
(Minister of State for Employment Relations, Industry and the Regions)
 - 고용관계, 고용중재심판소, 최저임금위원회, 자동차/항공/국방/해

양/소재/엔지니어링 산업, 지역정책 등 담당

○ 중소기업담당 정무차관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Small Business)

- 소기업청, 수출통제 및 비확산정책, 무역진흥 및 투자업무(무역 및 투자담당 국무상 지원) 등 담당

○ 소비자 및 시장담당 정무차관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Competition, Consumers and Markets)

- 소비자, 회사법, 경쟁정책, 파산청, 특허청, 회사청, 유럽현안 등 담당

○ 과학 및 혁신담당 정무차관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Science and Innovation)

- 과학기술청, 혁신 및 지식이전, 기업금융 및 투자기준, 기술적 규제, 국가표준시스템, 국립측정계량시험소, 국립우주센터, 바이오과학, 화학산업, 비즈니스클러스터정책 등 담당

○ 사무차관(Permanent Under Secretary)

④ 과학기술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청장(Chief Scientific Adviser and Head of OST)

○ 연구실장(Director General of the Research Councils)

- Science and Engineering Base Group
- Transdepart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Group

⑤ 대외무역청(British Trade International)

- 청장(Group Chief Executive)
 - 부청장(Deputy Chief Executive)
 - Strategy and Communication Group

⑥ Trade Partners UK

- 무역진흥 및 대외투자지원 전담기구
 - International Trade Development(Group Director)
 - International Sectors(Group Director)

⑦ Invest UK

- 투자유치 전담기구 >
 - 투자유치국 실장(Chief Executive)

⑧ 소기업청(Small Business Service)

- 청장(Chief Executive)
- 부청장(Deputy Chief Executive)

⑨ 특허청(Patent Office)

- 청장(Comptroller-General/Chief Executive)
 - Patents & Designs Directorate (PDD)
 - Trade Marks Directorate (TMD)
 - Administration & Resources Directorate (ARD)
 -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Directorate (IPP)
 - Copyright Directorate Marketing Directorate (MD)

⑩ 국립측정계량연구소

(National Weights and Measures Laboratory)

- 소장(Chief Executive)

- Director, Business Support
- Director, Certification and Test
- Director, Metrology and Quality Director, Legal Metrology Policy

⑪ 전파관리소 (Radio communications Agency)

- o 소장(Chief Executive)
 - Chief Executive Group
 - Executive 1 - Spectrum Policy Executive
 - Executive 2 - Spectrum Services Executive
 - Executive 3 - Customer Services Executive
 - Executive 4 - Corporate Services and Facilities Executive

⑫ 기타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 o Company House
- o Employment Tribunals Services
- o The Insolvency Service
- o Warren Spring Laboratory

나. 주요 발표 및 토의 내용

(가) 기업에서의 ICT 이용

① ONS의 기업체 전자상거래조사

- o EU 전체의 정보사회 통계수집 운동의 일환
ONS 에서는 기업의 ICT 활용조사를 2000년부터 시행

- 표본규모는 12,000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규모를 포괄
응답율은 2002년의 경우 80% 이상으로 높음
- 결과는 기업체수 및 종사자수 가중치로 발표되며 전자상거래 추정치
자료도 있음



<사진7 DTI에서의 국제벤치마킹연구 양자간 회의 모습>

(나) 국제 벤치마킹 연구 (IBS)

① IBS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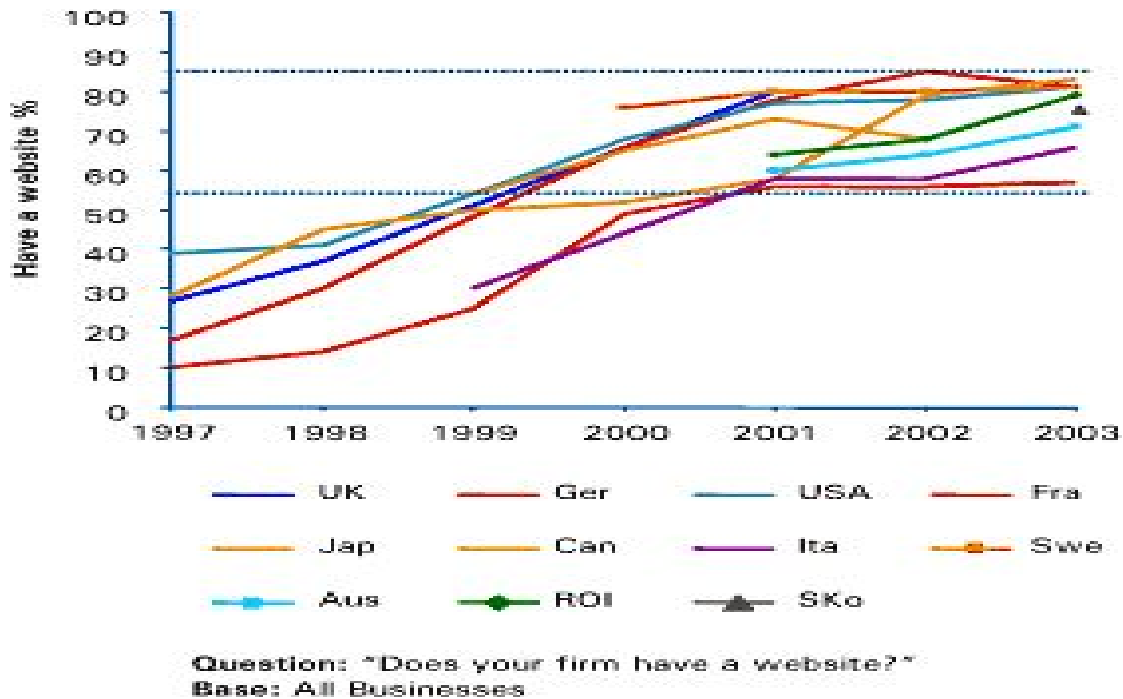
- IBS는 1997년부터 조사, 주요국의 기업체 ICT 활용을 조사하기 위
한 목적

- 최근에는 점차 ICT의 복잡한 활용, ICT의 성공적 구축의 보완요소 등으로 조사 초점이 전개됨
- 조사방식은 전화조사이며 영국기업 약 3000개, 다른 국가는 각 500개 기업을 포괄함
- 응답률은 일반적으로 25% 정도로 낮음
(자발적/전화조사인 점을 감안할지라도)
- 결과는 종사자 가중치로 제공됨
 - ICT 활용의 저평가를 피하기 위함인데 사업체 가중치도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됨
- IBS 설문항목은 기본적인 ICT 수용 설문인데 많은 항목이 수년 간 변하지 않고 있는 바 예컨대 웹사이트 보유여부 등임

- 전자상거래 규모
 - Value of e-commerce sales

ONS e-commerce survey - value of e-commerce sales by enterprises *						
증 n						
Employment size	<u>0-9</u>	<u>10-49</u>	<u>50-249</u>	<u>250-999</u>	<u>1000+</u>	<u>All sizebands</u>
orders received over other electronic networks						
2001r	9.6	14.1	32.3	48.3	76.2	180.5
2002	4.7	8.7	29.8	41.3	84.7	169.1
difference	-4.9	-5.4	-2.5	-7	8.5	-11.4
% difference	-51%	-38%	-8%	-14%	11%	-6%
orders received over the internet						
2001r	1.1	1.2	2.4	3.4	8.7	16.8
2002	1.7	1.5	3	5.1	12	23.3
difference	0.6	0.3	0.6	1.7	3.3	6.5
% difference	55%	25%	25%	50%	38%	39%
* excludes finance sector						

각 국의 웹사이트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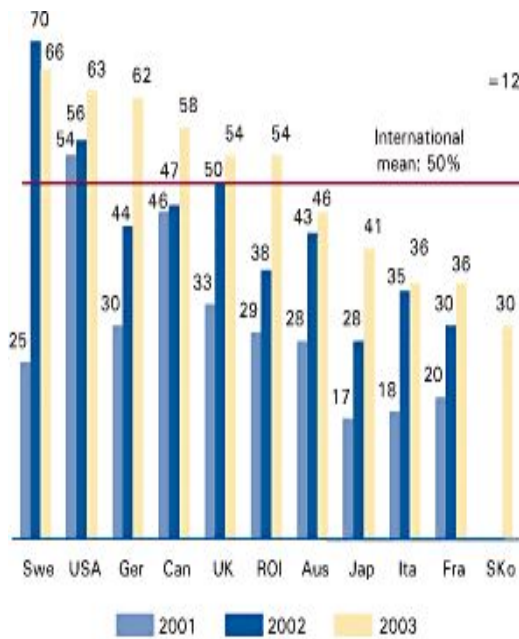
- 또한 전자상거래 부문 즉 전자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판매/구매와
-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내외부 시스템 통합도 포함됨

- 기업의 ICT 활용과 더불어 기술구축의 동기에 대한 질문도 있음
-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기업조직과 기업내부에서 ICT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축되는 가임. 이 것의 한 측면은 기업이 ICT의 비용과 이익을 분석하는지 여부임
- 또 다른 설문은 환경의 영향임; 여기에는 다른 기업의 활동에 의한 영향, ICT의 충고 존재여부, 정부활동 및 규제의 영향도 등이 포함됨
- 복합지수가 고안되었으며, 두 개의 ICT 복잡화 접근방식, 8개의 주요 요소를 활용하는
 - 인지, 채택, 이용, 영향
 - 인력, 기술, 프로세스, 환경



<사진8 DTI의 IBS 설명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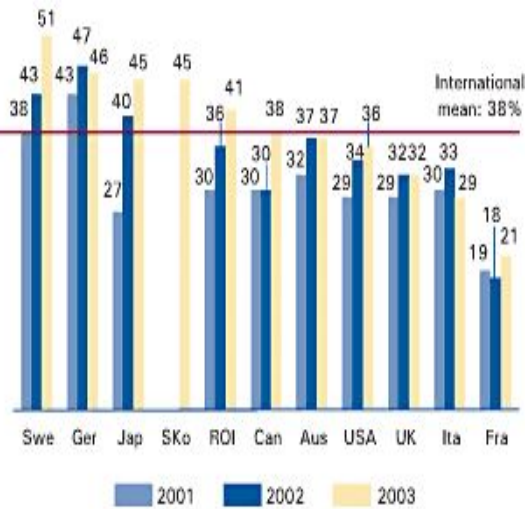
전자상거래 구매업체 비율



Question: "Does your business order online?"
Base: All businesses

전자상거래 판매업체 비율

Difference = 12 percentage points



Question: "Can your customers order online?"
Base: All businesses

② 정보보안사고 조사

- IBS 는 정보보안조사를 후원하고 있음
(조사기관 : Price Waterhouse Coopers)
 - 전 사업체 규모를 포괄하는 약 1,0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
화조사임
- 조사의 목적은 기업의 보안사고를 식별하여 비용을 추정할 목적임
 - 아울러 구축된 보안조치와 ICT의 아웃소싱을 살펴보려 함

(다) 「International Benchmarking Study」 참고자료

① 「International Benchmarking Study」 란?

- 영국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통상산업부)가 영
국경제 내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현황을 타국가와 비교연구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회씩 수행 중
- '03년에는 DTI의 예산으로 세계적 전략 컨설팅사인 「Booz Allen
Hamilton」 과 리서치사인 「HI Europe」 의 공동연구로 실시됨
- 2003년부터 조사대상국에 한국 추가
- 제1차 한·영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02.9월, 런던)에서 우리측이 '03
년부터는 한국도 조사대상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여 영국이
이를 반영함
 -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하게 된 배경을 브로드밴드의 광범위한 보급
(near-universal availability of broadband)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
(aggressive government investment)에서 찾고 있음

* '02년까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스웨덴,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연구

○ 2003년 연구는 '03.10월 중간보고서를 거쳐 '04.1월 최종발표

○ 각 국가당 5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1차 산업, 제조, 건설, 소매, 교통 및 통신, 금융, 서비스, 공공부문 등 총 8개 부문임

② 2003 조사결과

○ 종합 순위

순위	1	2	2	4	4	6	7	7	9	10	11
국가	ROI	Can	USA	Ger	Swe	Kor	UK	Aus	Jap	Ita	Fra
Index	0.53	0.52	0.52	0.51	0.51	0.50	0.49	0.49	0.47	0.45	0.42

○ 항목별 순위

환경적 영향	사람	인식	기술
Can 0.42	ROI 0.62	Kor 0.63	ROI 0.63
USA 0.41	Can 0.59	ROI 0.62	Ger 0.61
ROI 0.40	Ger 0.59	Ger 0.61	USA 0.61
Ger 0.39	USA 0.59	Can 0.60	Swe 0.61
Swe 0.39	UK 0.58	USA 0.60	Can 0.60
Ita 0.39	Aus 0.58	UK 0.59	Kor 0.59
Kor 0.39	Kor 0.57	Aus 0.58	Jap 0.57
Jap 0.39	Jap 0.56	Swe 0.57	Ita 0.57
UK 0.38	Swe 0.54	Ita 0.55	UK 0.57
Aus 0.38	Ita 0.51	Jap 0.51	Aus 0.56
Fra 0.35	Fra 0.50	Fra 0.50	Fra 0.51

적용		프로세스		전략적 활용		효과	
Swe	0.53	Can	0.48	ROI	0.45	USA	0.54
ROI	0.53	ROI	0.48	Can	0.44	Ita	0.53
Can	0.53	USA	0.47	USA	0.43	ROI	0.52
Ger	0.51	Swe	0.47	Jap	0.42	Can	0.52
Kor	0.51	Ger	0.46	Ger	0.42	Ger	0.51
USA	0.51	UK	0.45	Aus	0.42	Swe	0.50
Jap	0.49	Aus	0.44	Swe	0.41	UK	0.50
UK	0.49	Kor	0.43	UK	0.40	Aus	0.49
Aus	0.47	Ita	0.41	Kor	0.37	Jap	0.48
Ita	0.44	Jap	0.37	Ita	0.35	Kor	0.47
Fra	0.41	Fra	0.35	Fra	0.34	Fra	0.46

③ 기업 ICT 활용의 전반적 현황

- 기업의 90% 이상이 ICT를 활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ICT의 발전 여부는 더 이상 통신망 보급률, 인터넷 접근률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없고, ICT 활용의 효율성에 의해 측정되어야 함
 - ICT 그 자체보다는 ICT 적용의 결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나타난 영향, 즉 ICT에 대한 투자수익률, ICT 적용으로 인한 비즈니스 환경변화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
- 기업의 ICT 신규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사용중인 ICT 활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점차 확대
 - 대기업은 ICT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브로드밴드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중소기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고비용을 투자하여 브로드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일부 실현된 발전된 ICT 확장(ex. 비디오 컨퍼런스)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



<사진9 영한 양자간 회의를 마치고 DTI 관계자들과 함께>

④ 항목별 평가

○ 환경적 영향

- ICT의 적용 여부, 적용 시기 등 ICT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는 항목
- 조사대상국들은 모두 ICT 적용을 위한 기술자문이나 지식을 컨설턴트나 대중매체를 통해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한국은 ICT 자문이나 정보를 정부로부터 얻는 비율이 조사대상국 중 프랑스에 이어 가장 낮으며, 고객으로부터 얻는 비율은 일본에 이어 가장 낮음

- 이메일을 통한 정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영국, 캐나다,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한 납세도 감소

o 사람 및 인식

- 사람들의 ICT에 대한 수용도를 나타내는 항목
- 대부분의 조사대상국들은 ICT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75~90%의 경영자들은 ICT의 적용이 회사의 경영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답변
- 한국은 ICT 활용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의 적응도에 있어서 70%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외부메일 사용률에 있어서도 70%로 가장 높게 조사됨
- 반면 한국의 경영자들은 「피고용자의 ICT 능력이 사업수행에 적합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부정적으로 답변

o 기술 및 적용

- ICT가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 조사대상국들의 통신망 보급률은 80~90% 정도로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80% 미만의 통신망 보급률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은 95%의 가장 높은 통신망 보급률을 기록하였으며, 인터넷 접속률에 있어서는 아일랜드와 함께 거의 100%를 기록
- 한국은 중소기업의 97%가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5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웹사이트 보유율이 점점 감소하는 세계적 추세와 현저한 차이를 보임

- 다만, 한국은 화상회의를 비롯한 발전된 ICT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o 프로세스 및 전략적 활용

- 외부와의 거래 또는 내부 시스템에 있어서 ICT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
- 한국은 인프라면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ICT의 전략적 활용은 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상으로 고객들에게 가격이나 계약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한국은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군에 속함

o 효과

- ICT 적용이 비즈니스 수행에 미친 영향(ex. 온라인 거래비율, 온라인 사업수행의 부작용)을 측정하는 항목
- 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증가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감소하는 추세
- 한국은 거래액 기준 온라인 구매율이 34%로 조사대상국 중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온라인 판매율도 23%로 리딩그룹에 속함
- 한국은 ICT를 활용한 수익의 실현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반면 한국은 ICT를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에 있어서도 일본, 스웨덴과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⑤ 종합 평가

- 우리나라는 기업의 ICT 활용에 있어서 11개 조사대상국 중 6위를 기록하였으며, 아일랜드(1위), 캐나다(공동 2위), 미국(공동 2위)이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로 조사됨
- 우리나라는 브로드밴드 기술력과 사람들의 ICT에 대한 인식에서 1위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위 내지는 상위를 기록
- 반면 ICT의 효과적 활용도면에 있어서는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하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4. 스위스의 정보사회통계

가. 연수 개요

- 일 시 : 2004. 6. 14 (월), 0900~1200
- 장 소 : Conference Room, 14th Floor
Espace de l'Europe 10, 2010, Neuchatel
- SFSO 측 참석자
 - Mr. Gabriel Gamez (Head, Statistics Policy and Cooperation)
 - Mr. Philippe Stauer (Deputy director, Economy cycle & structure division)
 - Dr. Volker Taeube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 Mr. Jacot Descombes (International affairs)



<사진10 스위스·한국 디지털경제통계 회의를 마치고 Aperitif 파티를 하는 모습>

나. 스위스 통계청 및 통계조직 소개

(가) 일반 현황

- 스위스 공식통계체제는 연방통계당국 및 그 통계가 주축을 이루고는 있으나. 그 외에도 칸톤 및 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사무소와 통계기관들을 다수 포함한 분산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그뿐 아니라 몇몇 사영기관 및 민간단체,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Swiss National Bank).도 연방통계 작성에 기여하고 있음. 칸톤 및 주요 시정부는 자신의 고유 통계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칸톤 및 시정부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는 연방통계 활동에도 다소 완화된 형태로 관여를 하고 있음.

- 연방통계의 주요 생산자인 스위스 연방통계청(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SFSO)은 스위스 내에서 유일하게 오직 통계에 관련된 활동만을 수행하는 특화된 기관임.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연방통계법(Federal Statistics Act)에 의하여 대부분의 공식통계를 수집하고, 수많은 연방통계 생산자들의 통계활동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연방통계법에 규정된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음.
 - 다년간 통계 기획
 - 연방수준의 통계 조정
 - 칸톤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 국제 관계의 원활한 추진(nurture)

(나) 통계조직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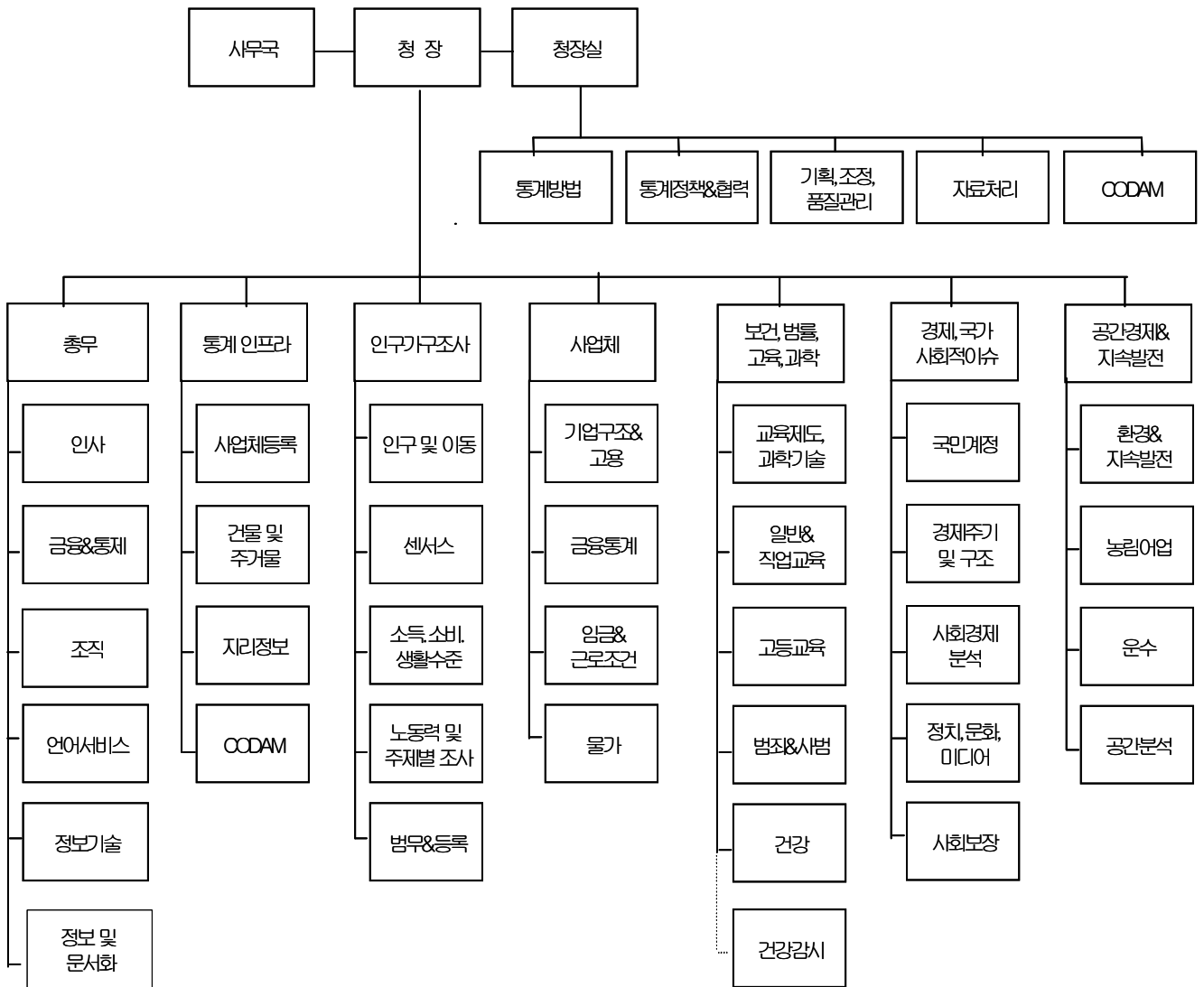
(1) 조직

-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7개 국(Division), 27개 과(Sectio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 인구 및 고용 : 인구센서스, 스위스 경제활동인구조사(SAKE)
 - 국가경제 및 물가 : 기업체 센서스, 물가 통계, 국민 계정
 - 공간 경제학(Spatial Economics) : 운수 통계학 및 토지사용
 - 사회 및 교육 : 학교, 아동 및 청소년범죄 통계
 - 총무 : 인사, 재무, 병참 업무(logistics), 조직, 정보 및 문서관리 (documentation), 번역 서비스 및 정보기술 등의 기본 인

프라 제공

o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스위스 통계청 조직도



(2)인력

o 스위스 연방통계청에는 대략 49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확

한 인원수는 해마다 기복이 있음. 이는 조사업무(예를 들어 기업체 센서스 또는 인구센서스) 또는 당면 개정작업 등에 기인함. 스위스 연방통계청 직원의 여성 비율은 40%에 달하지만, 고위직급의 여성 비율은 아직 낮은 편임. 직원 중 대략 1/3이 대학원 이상 학력보유자이며, 전공은 담당통계의 주제와 짝을 이루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농업경제학자들은 농업통계에 종사하고,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통계, 사회학자들은 교육통계에 종사하고 있음. 주요 조사가 있는 연도에는(구조적인 조사/인구 센서스 및 기업체센서스), 고정직 공무원을 보조하도록 임시직 직원들이 채용되고 있음.



<사진11 스위스의 통계조직과 통계청에 대한 설명>

(3) 작성 통계

○ 스위스 공식 통계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통계 일반	▪ 관광
▪ 인구 및 인구동태	▪ 운수 및 통신
▪ 지역, 풍경 및 환경통계	▪ 화폐공급, 금융시장 및 은행
▪ 고용 및 노동시간	▪ 사회보장 및 민간 보험
▪ 국민계정	▪ 보건
▪ 물가	▪ 교육 및 과학
▪ 생산, 거래 및 소비	▪ 문화 및 생활조건
▪ 농업 및 임업	▪ 정치
▪ 에너지	▪ 공공재정
▪ 건설 및 주택공급	▪ 법무 및 정의

(4) Feedback 및 독립성 유지 문제

-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업무에 관한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있음. 공식 자문기구로는 스위스 연방통계법(Federal Statistics Act) 규정에 따라 연방통계위원회(Federal Statistics Commission, FEDESTAT)가 설립된 바 있으며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음.
 - 다년간 연방통계계획 감독 및 평가
 - 중요통계 또는 중요 학제 프로젝트(important interdisciplinary projects)의 신규도입·중단·주요 수정조치 평가
 - FEDESTAT는 연방통계의 생산자 모두를 포함하여, 통계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서, 공식 통계제도의 한 부분임.

- REGIOSTAT는 모든 칸톤 및 지방자치단체 통계청과 통계국 (statistical offices and departments)을 포함하고 있으며, 칸톤,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통계청 사이의 상호작용을 담당하고 있음.
- o 연방통계위원회 의장은 학계(academia)를 대표하는 반면, 기타 위원들은 과학계, 민간 산업체, 고용인/피고용인 연합, 칸톤 및 지역 등의 고위급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됨.

(5) 중앙통계기구 활동에 관한 법률규정

- o 스위스 연방통계청의 법적 근거는 행정조직법(Administration Organization Act, 1978), 연방통계법(Federal Statistics Act, 1992), 및 이에 연관된 4개의 집행규정과 1988년에 개정된 연방센서스법(Federal Census Act) 등이다.
- o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2) 및 이에 상응하는 연방통계법의 정보보호 규정은 통계비밀을 규율하고 있으며, 자료오용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내용에 따르면,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오직 통계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음. 통계비밀을 개념으로 인해 개인·법인 자료는 행정감사와 재정 절차(국고수입)를 의해 사용될 수 없음. 그 외에 통계결과를 개별 개인·법인에 대한 결론이 도출 가능한 형태로 출판하는 것 또한 이 규정에 의해 금지됨. 통계비밀 위반은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음.

다. 주요 발표 및 토의 내용

(1) 정보사회통계지표 담당부서 소개



<사진12 스위스의 정보사회통계지표 개관에 대하여>

o 경제·국가·사회이슈局的 기능 소개

(Division of Economy, State and Social Issue)

- 스위스 통계청은 1998년 연방수도인 베른에서 뇌사텔로 이전
- 연방수도인 베른에서 10여 장소에 분산되어 있던 스위스 통계청은 뇌사텔 이전 후 단독청사에 입주
-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통계는 우리에게 준거점을 제공하며, 핵심사실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계획/준비/조치 평가에 유용할 뿐 아니라 시나리 및 예측 설계의 기초적 필요조건임
- 통계는 우리의 즉각적인 지각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스위스 연방통계청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국가영토 및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 경제·국가·사회이슈 局의 주요 조직 및 기능
 - 국민계정課, 경제사이클·구조課, 사회·경제분석課, 정치·문화·미디어課, 사회안전課 등 5개 課로 구성
 - Job 수는 45.7 로서 SFSO 전체의 9.6%를 차지
 - 성장, 경제 사이클, 소득, 국가활동,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지의 종합적 평가
 - 경제·사회·소득 관련 이슈와 정치적 토픽의 ‘네트워킹’
 - 국민계정課
 - 스위스 경제의 거시경제 지표 및 연간성과 분석
 - 고전적 종합통계
 - 경제사이클·구조課
 - 특정분야 (생산성, 혁신 등)에 관한 거시경제 분석 및 성장분석의 기초
 - 정보사회 지표
 - 국민계정의 품질관리 및 확장
 - 지식기반경제의 분석
 - 사회·경제분석課
 - 가구 및 개인(군)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분석
 - 경제 및 사회적 이슈 교량으로서의 소득 분석
 - 정치·문화·미디어課
 - 스위스의 정치 환경 분석
 - 문화 및 미디어 환경 분석
 - 사회변화의 정치적 배경
 - 사회안전課
 - 스위스의 사회적 안전에 관한 미시적 및 거시적 분석

- 중앙/광역지역/지역/특정그룹(인구) 단위에서의 분석
- 중앙·지방정부와 경제·사회의 연결

(2) 스위스 정보사회 지표 개관

○ 스위스 정보사회 지표는 다음의 7개 분야로 구분되어 작성되고 있음

- 가구 및 인구분야
- 기업 분야
- 공공기관 분야
- 교육 분야
- 과학 및 기술 분야
- ICT 분야
- 콘텐츠 분야

○ 정보사회 부문별 세부지표는 아래와 같음

- 가구 및 인구분야
 - ① 전화 인프라 ② 인터넷 인프라
 - ③ ICT 기능 ④ ICT 지출
 - ⑤ 미디어 활용 ⑥ 인터넷 활용
 - ⑦ 고속 인터넷
- 기업 분야
 - ① ICT 인프라 ② ICT 투자
 - ③ 전자상거래 ④ ICT 활용
- 공공기관 분야
 - ① ICT 인프라 ② e-센서스
 - ③ 온라인 서비스

- 교육 분야

- ① ICT 교육 ② 정보과학 등



<사진13 SEAMATE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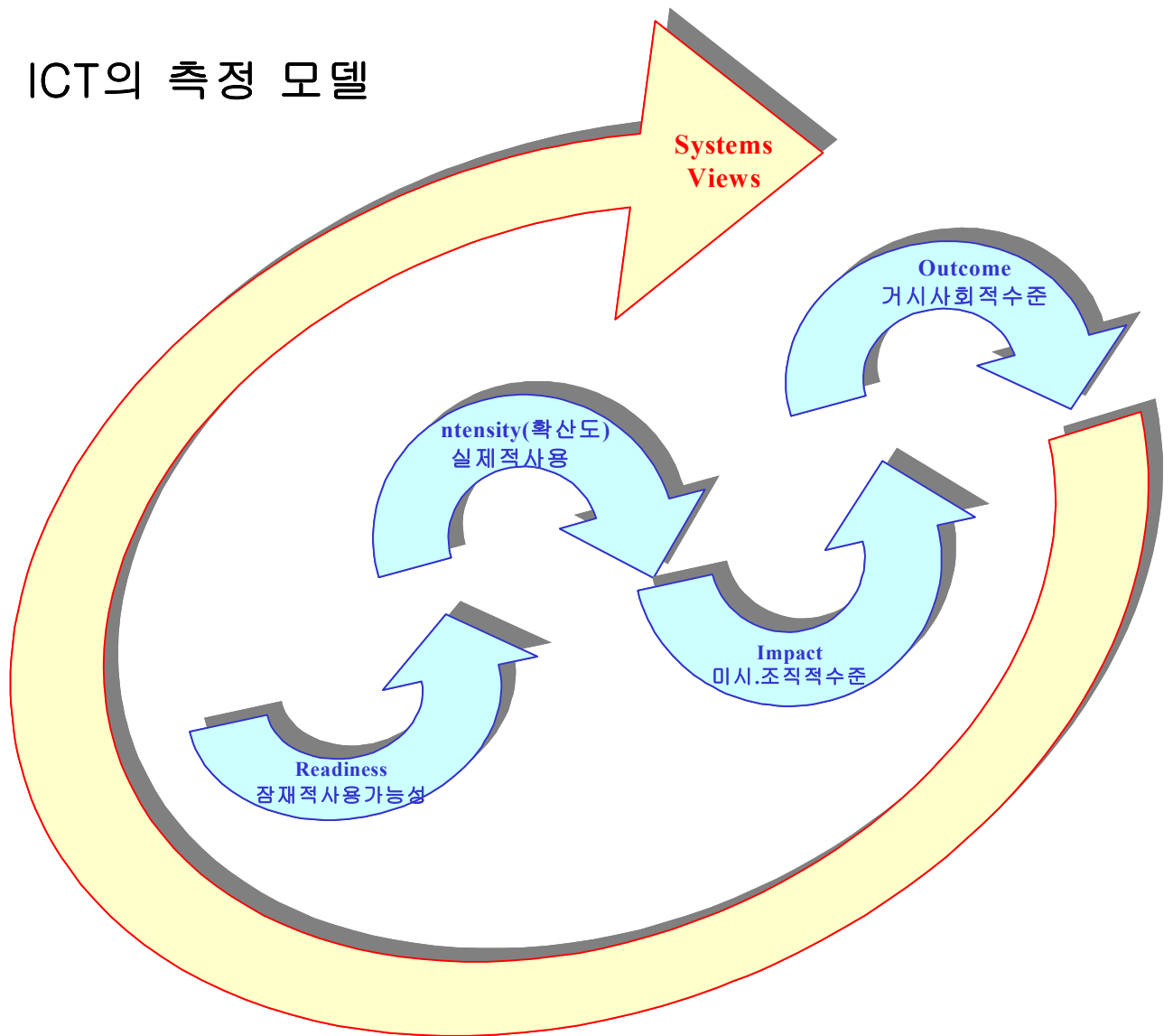
(3) SEAMATE 소개

- SEAMATE란 유럽의 IT 적용에 관한 사회경제적 분석과 거시적 모형분석 모델 프로젝트로서 Socio-Economic Analysis and Macro-Modelling of Adapting to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urope의 약자임
- 유럽의 IT기술 적용에 관한 사회·경제적 분석 및 거시모델
-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스위스 통계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o ICT의 측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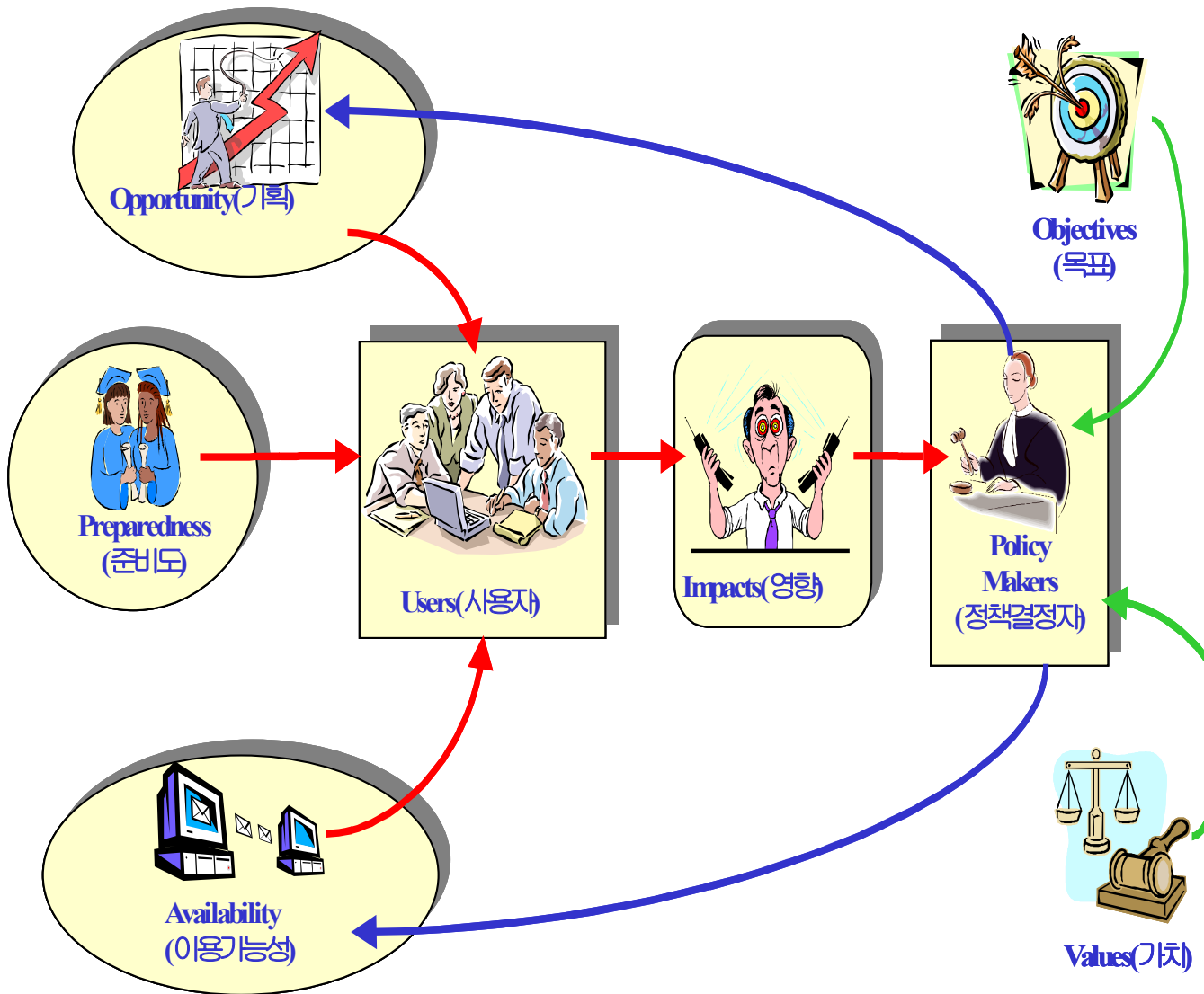
- ICT의 진전도 측정은 Readiness (준비도, 잠재적 사용가능성) → Intensity (확산도, 실제적 사용) → Impact (영향도, 미시 조직적 수준) 단계로 측정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체의 입장에서 본 Output (산출물) 측정을 목표로 함

ICT의 측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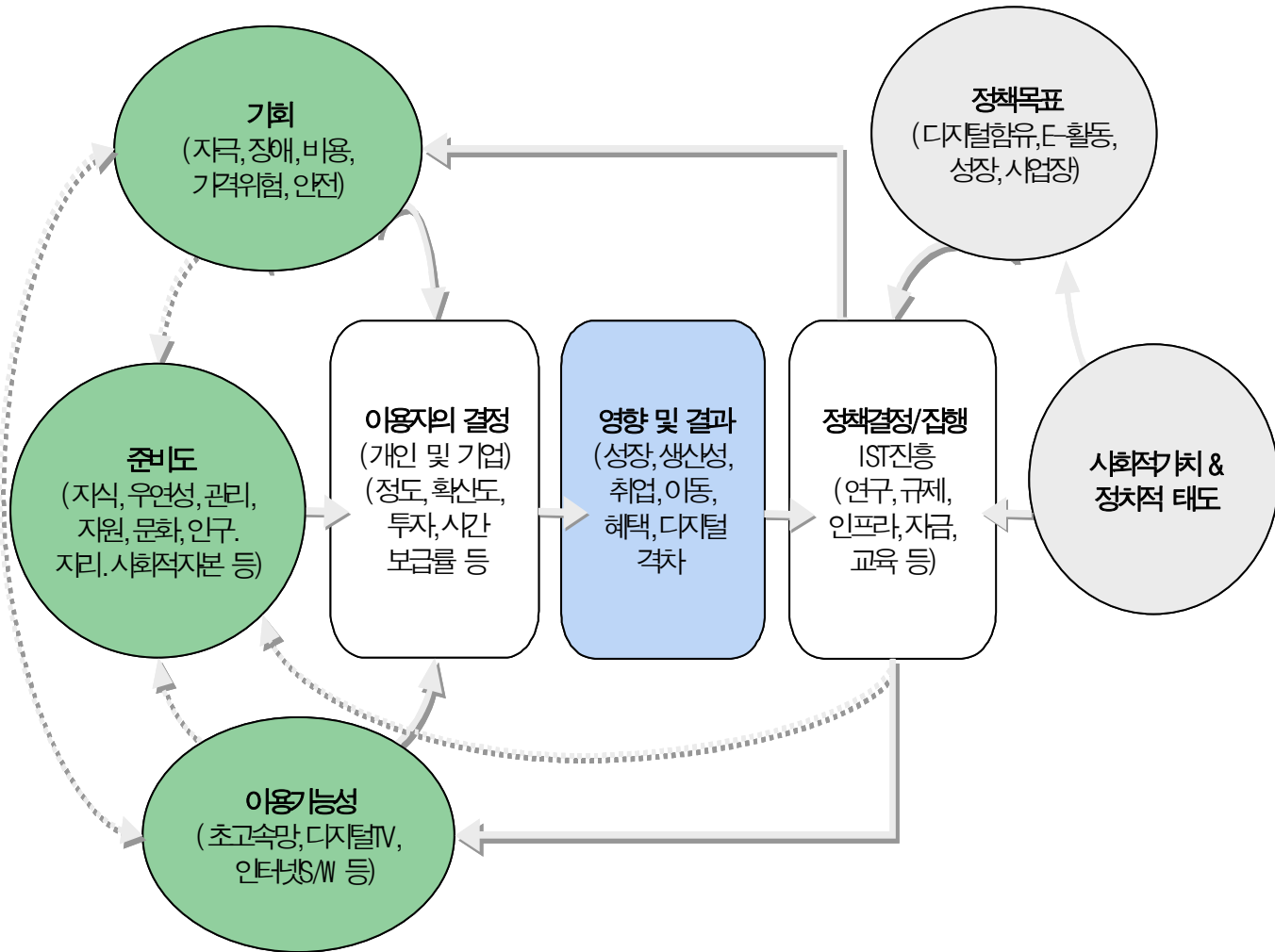
- o ICT의 측정 모델을 이해가 쉽도록 실생활의 예를 들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ICT 개념도의 적용 예시 >



- 정책결정자와 ICT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ICT 개념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정책결정자 중심의 IST모델



5. 국제 디지털경제 통계현황

가. 연수 개요



<사진14 국제 디지털경제통계 관련 양자간 회의를 마치고 ITU 관계자들과 함께>

- 일 시 : 2004. 6. 17 (목), 13:30~16:30
- 장 소 : Seminar room B1, Place des Nation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 ITU 측 참석자
 - Mr. Pape Gorgul Toure (Chief, Policies, Strategies, Financing Department)
 - Dr. Tim Kelly (Head, Strategy and Policy Unit)
 - Mr. Michael Minges (Head, Telecom Data & Statistics Unit)

- Ms. Vanessa Gray (Telecom analyst)
- Ms. Esperanza Magpantay (statistician, BDT)
- Dr. Taylor Rennolds (olicy analyst, Strategy and Policy Unit)
- Mr. Hamadoun I. Toure (Director, Telecom Development Bureau)

나. ITU 기관소개

(1) ITU의 목적

- o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이며 전기통신에 관한 최고 국제기구로서 전기통신관련 국가 간 이해 조정, 국제협력, 국제 전기통신규칙의 제·개정 및 개발도상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2) 주요활동

- o 국제전기통신연합 현장에서 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주요 활동
 - 서비스 품질향상과 함께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 국제연합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 또는 자체 자원의 이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개도국에 기술지원을 하고 통신설비와 통신망의 신설·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
 - 전기통신설비들의 개발과 향상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조정
 -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규칙 제정, 결의 채택, 권고 및 의견작성, 정보의 수집 및 발표



<사진15 ITU에서 정책연수단 일행과 함께>

(3) 연혁

- 1865년 유럽 20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전신협약(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 협약의 개정을 위한 상설기구로 국제전신 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을 창설
- 1927년 전파통신 분야의 기술연구, 시험 및 측정을 조정하고 국제 표준 작성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제무선자문위원회(CCIR :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설립
- 1932년 유·무선의 통합된 규정을 세우기 위하여 마드리드에서 국제 전신회의와 국제무선전신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여 국제전신연합을 국제

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개칭

- 1947년 국제연합(UN)과 협정을 체결하여 UN 전문기구중 하나가 되었으며,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IFRB :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및 관리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설립
- 1992년 스위스 제네바 추가전권위원회의에서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 국제무선자문위원회(CCIR),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IFRB)를 통합하여 전파통신, 통신표준, 통신개발 3개 부문으로 조직 개편

(4) 조직 및 예산

㉠ 조직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최고의결기관인 전권위원회의, 46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국제전기통신규칙을 개정하는 부정기적인 국제전기 통신 세계회의, 전략계획과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사무총장에 대한 자문 및 실무상의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된 조정위원회의 와 세계전기통신자문위원회, 그리고 전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전기통신개발의 3개 부문으로 구성
- 사무국은 연방 형태의 독특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무총장 직속인 일반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ITU Telecom과 통신표준(ITU-T), 전파통신(ITU-R), 통신개발(ITU-D) 3개 부문별 사무국으로 구성
 - 연혁적인 이유로 사무차장 및 3개 부문 국장이 사무총장 임명직이 아닌 전권위원회 선출직임.
- 전파통신 부문
 - 세계/지역전파통신회의(WRC/RRC), 전파통신총회(RA), 비상근

의 전파관리위원회(RRB), 산하 7개 연구반(SG) 및 전략자문회의 (TSAG)로 구성

- 위성통신을 포함한 모든 전파의 합리적, 경제적, 효과적이며 공평한 사용을 추구
- 각국 무선국간 유해 혼신방지를 위한 효율적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위성 궤도 조정 및 등록업무 수행

o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WTSC)와 산하 13개 연구반(SG) 및 전략자문회의(RAG)로 구성
- 범세계적 전기통신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운용과 요금 문제에 대한 연구수행 및 권고 채택
- 현재 전기통신 뿐 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통신 표준화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의 경우 전 세계 유일의 표준화 기구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는 민간주도 표준기구와 경쟁 및 상호 보완관계 유지 (ISO, IETF, 3GPP 등)

o 전기통신개발 부문

- 세계/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WTDC/RTDC)와 산하 2개 연구반 (SG) 및 전략자문회의(TDAG)로 구성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와 기술협력을 위한 활동의 제공 및 조정과 이를 통한 범세계적 전기통신의 개발 촉진
- 최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Digital Divide해소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기능인 개도국에 대한 통신기술지원에 부가하여 최근 규제정책관련 정보제공 기능수행

㉞ 사무국 직원

- o 2002년 4월 기준 : 960명(지역사무소 46명 포함)
 - 국별 분포 : 78개국 269명(지역배분원칙 적용이 가능한 전문직)

㉔ 예산

- o 2003-2004년 : 3억 7503만 SFR
 - 전체 예산중 회원국 분담금이 68%, 부문회원 분담금이 12% 차지
 - 기타 출판수입, Telecom 행사 수입 등이 20% 차지

(5) 주요 회의

- o 전권위원회(PP, 4년마다 개최) : 최고 의사결정기구
 - 차기 전권위원회는 9월 23일 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모로코 마라 케쉬에서 개최예정
- o 이사회(Council, 매년 제네바에서 개최)
- o 분야별 총회
 - 세계통신표준총회(WTSA, 4년 마다 개최)
 - 세계전파통신총회(WRC, 2-3년마다 개최)
 - 세계통신개발총회(WTDC, 4년 마다 개최)
- o 분야별 전략자문회의 : 매년 1-2회 개최
 - 통신표준전략자문회의(TSAG), 전파전략자문회의(RAG), 통신개발 전략자문회의(TDAG) 연구반(Study Group)
 - 표준권고 제정, 주파수 관리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회의로 연중 개최

5. 회원국 및 부문회원

- o 기본적으로 정부 간 국제기구인 ITU는 전 세계 전기통신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통신관련 기업, 연구소 등 민간부문을 부문 회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세계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협력을 도모

- o 2002. 5 현재 ITU의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부문회원은 약 668개

(6) ITU 주요 현안

□ 정보화 사회 세계정상회의

(WSIS: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 o ITU는 2000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보화 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관련 UN산하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 중
- o 정보화 사회 세계정상회의 개요
 - 개최시기 및 장소
 - 제 1차 회의(2003년, 스위스 제네바),
 - 제 2차 회의(2005년, 튀니지아)
 - 목적
 -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공통 비전 개발과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화된 발전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을 도출
 - 현재 검토 중인 회의 주제
 - Building the Infrastructure(정보화 사회 인프라를 신설하고 Digital Divide해소를 위한 통신, 투자 및 기술의 역할), Opening the Gate(정보화 사회에 대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접근, 개도국의 수요 충족), Services and application(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을 위한 정보화 사회의 함의), The needs of users(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Developing a Framework(정보화 사회 건설을 위한 정부, 민간 및 시민사회의 역할)

□ IMT-2000 표준 및 주파수 재배치

○ ITU의 IMT-2000 표준 및 주파수관련 추진경과

- IMT-2000

- ITU의 IMT-2000 표준을 적용하여 제공되는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을 의미하며 현재 제공되는 이동전화 등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고도화되고(무선 인터넷 등), 서비스가 고도화된 이동통신서비스임.

- IMT-2000 표준

- ITU는 WRC-2000에서 5가지 표준 승인(1999.11)
- 사실상 유럽주도의 W-CDMA(비동기식)와 미국주도의 cdma 2000(동기식)으로 대별됨

- IMT-2000 주파수

- WRC-92에서 세계 공통 IMT-2000 주파수가 지정된 이후 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폭증이 예견됨에 따라 WRC-2000에서 추가 주파수 지정(2000.5)

○ IMT-2000 표준 및 주파수관련 주요현안

- Global Roaming을 위한 표준 및 각국 기술기준 조화

-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는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권고제정 (ITU-T 특별연구반) 추진
- 각국 정부의 IMT-2000관련 기술기준(주파수관리, 형식검정 등)의 동일화 작업 추진

- 간편한 Global Roaming을 위한 추가 주파수 재배치 계획연구

- 추가 주파수로 지정된 대역을 다수 국가가 이미 셀룰라, PCS 등 이동통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를 적정시기까지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국제 공통으로 IMT-2000을 도입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IMT-2000 표준 Upgrade 및 제4세대 이동통신 표준개발

다. 주요 발표 및 토의 내용



<사진16 ITU의 통계활동에 대한 설명>

(1) ITU의 통계활동 개요

- 정보통신기술통계는 기업의 성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식경제의 지표임.
 - ICT 통계는 기업의 향후 방향계획 작성과 정부의 조성 정책 결정에 도움.
 - ICT 는 자체가 산업일 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걸친 가능자 (enabler)의 역할을 수행함.

o ITU의 통계관련 주요 활동

- ITU 통신/ICT 지표 자료수집
- 미팅/워크숍
- 국제협력
- 자료배분의 형태
- DAI (디지털접근지수, Digital Access Index) 작성

o ICT 지표 : 자료수집 (통신 당국자, 정부부서)

- i. 전화망
- ii. 모바일 서비스
- iii. 기타 서비스
- iv. 정체 (트래픽)
- v. 인력
- vi. 서비스의 품질
- vii. 관세
- viii. 수입과 지출
- ix. 자본지출
- x. 방송
- xi. 정보기술

o ICT 지표 : 자료수집 (국가통계청)

- 지난 해까지는 각국의 통계청에 직접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음
- 그러나 올해에는 UN 경제위원회 (즉, 아시아지역의 경우 ESCAP)를 통하여 각국 ICT 통계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임
- ITU 수집 지표 (가구의 ICT 제품 보유현황)
 - 전기, 라디오, TV
 - 전화 (고정식만 있는 경우, 이동식만 있는 경우, 모두 있는 경우)
 - PC, 가정에서의 인터넷 이용

○ 자료수집의 어려운 점

- 모든 국가가 질문서에 응답하는 것은 아님
- 불완전한 자료 : 모든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아님
- 독점철폐로 여러 통신사업자의 자료를 취합해야 함
- 개도국의 경우 새로운 ICT 자료의 수집이 어려움
- 모든 국가의 중앙통계청이 ICT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님

○ ITU의 통신/ICT 미팅

- 세계 통신 및 ICT 미팅 (격년, 다음 미팅은 2005. 2월 예정)
 - 지난 번 미팅에서는 지표 리스트 및 정의를 개정함
- 지역사회의 ICT 접근지표에 관한 워크숍 (2004. 11월 멕시코 예정)
 - 지난 번 미팅에서 논의되고 인식된 지표는 웹사이트 참조
- 지역 워크숍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 2004. 11월 : 아프리카
 - 지역 수준에서의 ICT 자료수집과
 - 가구부문의 ICT 활용조사를 실시할 아프리카의 시험국가 선정

○ 국제협력

- UN 천년개발목표 (MDG) 모니터링
- 정보사회 정상회담 (WSIS) 의 통계행사 (2003. 12월, 제네바)
- 기타
 - 세계은행, OECD, Eurostat, UNCTAD, UNDP
- 공동협력

○ 개발을 위한 ICT 측정 공동협력

- 협력기관 : ITU, OECD, UNCTAD, UNESO, 기타 국제기구
국가통계청

- 개최 : UNCTAD 6, 2004. 6.14 브라질 사오파울로
- 목적
 - 모든 국가에서 수집 가능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조화될 기업/가구
부문의 핵심 ICT 지표 식별
 - 개도국의 ICT통계 작성능력 및 국가수준에서의 ICT 발달 모니터링
능력 함양
 - 핵심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인터넷 게시
(현행 지원정보에 대한 링크 포함)

○ ICT와 UN 천년개발목표 (MDG)

- 목표 제 18 항
 -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 (특히 정보기술)의 혜택이 이용가능토
록 함
- ITU는 3개 지표를 UN(MDG) 데이터베이스에 제공
 - 전화 가입자 (100인당)
 - 개인용 컴퓨터 (100인당)
 - 인터넷 사용자수 (100인당)
- ICT는 UN의 천년개발계획의 성취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제안된 지표와 함께)

○ 자료의 제공형태

- ITU 통계보고서
 - 통계연감, 세계통신개발 보고서, 지역통신지표 보고서
- ITU CD-ROM
 - 세계통신지표 데이터베이스
- ITU 웹사이트
 - 기본 지표, 휴대폰 가입자, 상위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료

- 이용자가 요청한 정보
 - 요청방법 : 전화, 팩스, e-메일

- o 통계 연감
 - 최초의 통계연감은 40년전 발간
 - 매년 말경 발간
 - 약 180여개 국의 자료 수록
 - 각 국의 10년간의 자료 수록
 - 최근 자료는 2002년 자료임
 - 인쇄보고서 및 전자문서 (PDF)로 이용가능

- o 지역 보고서
 - 지역 통신지표
 - 지역의 통신 행사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됨
 - 3 개 부문으로 구성
 - (개요, 지역통계, 통신사업자 명부_
 - 최근자료는 2004 아프리카 통신지표
 - 2004년 9월 아시아 태평양 통신지표 발간 예정

- o 세계통신지표 데이터베이스
 - 매년 공표
 - CD-ROM 및 ITU 전자서점에서 다운로드 가능
 - 200개 경제(국가)의 100개 지표 수록
 - 자료 추출, 차트 작성, 맵핑 및 자료 전송 가능
 - 다음 공표는 2004년 6월 말 예정이며 2003년 자료 일부가 포함될 것 임

- o 2003 세계통신개발 보고서

- 제 7판
- 매년 발간
- 180여 경제에 관한 최근 ICT/통신지표 결과표 및 분석자료 수록
- 2003년 12월에는 정보사회정상회담 (WSIS) 의 통계부분 행사를 위하여 발간
- 인쇄물 및 전자문서(PDF) 형태로 자료 이용가능

- o 2003 세계통신개발 보고서
 - 정보사회 접근 지표
 - 정보사회의 접근
 - ICT 접근의 측정
 - 기업/교육/정부에서의 ICT
 - ICT와 천년개발목표
 - 디지털 접근지수 (DAI)
 - 결론

(2) ITU의 통계지수

- o e-ITU 지수 (범용 서비스, universal service)

- o 가구의 보유 현황
 - 전기, 라디오, 텔레비전
 - 전화 (고정식, 이동식, 고정 및 이동식)
 - 개인 컴퓨터
 -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

- o 인구수
 - 이동전화권 범위

- 개인용 컴퓨터 사용
- 인터넷 접근 (가정, 학교, 직장 및 공공시설)



<사진16 ITU의 디지털경제통계 지수에 대한 질의응답>

- o 기업의 보유현황
 - 컴퓨터
 - 인터넷
 - 웹사이트

- o 교육
 - 학생/컴퓨터 비율 (1차/2차 교육기관)
 - 인터넷 연결 학교의 비율

- 정부
 - 인터넷 연결 정부기구의 비율
 - 웹사이트 보유 정부기구의 비율
 - 인터넷 연결 가능한 공무원수

(3) DAI (Digital Access Index, 디지털 접근지수) 소개

- 디지털접근지수 (DAI) 지표
 - 고정전화 가입자 수 (PSTN + ISDN)
 - 이동전화 이용자수
 - 인터넷 이용요금
 - 국제 인터넷 대역폭
 -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수
 - 인터넷 사용자수
- 디지털 접근지수(DAI)의 방법론
 - 인프라스트럭처
 - 100인당 고정전화 회선수 / 60 * (1/2) +
 - 100인당 휴대전화 가입자수 / 100 * (2/1)
 - 지불 비용
 - $1 - ((\text{월 20시간 인터넷 사용비용} / \text{월 총국민소득}) / 100)$
 - 지식
 - 문자해독률 / 100 * (2/3) + 학교등록 / 100 * (1/3)
 - 품질
 - 100인당 국제인터넷 대역폭 / 10,000 * (1/2) +
 - 100인당 초고속통신망 가입자수 / 30 * (1/2)

- 활용

- 100인당 인터넷 사용자수 / 85

o 디지털 접근지수 목표수치

지 표	목표	내 용
100인당 전화회선 수	60	최고치는 1998년 스웨덴의 69.3 2002년에는 65.3 까지 낮아짐
100인당 휴대전화 가입자수	100	2개 경제에서 목표치 100을 달성 룩셈부르크 및 타이완
문자해독률, 학교 등록	100	UNDP에서 설정한 목표치임
인터넷 접근비용 (1인당 GNP에 대한 비율)	100	인터넷 접근비용으로 개인의 소득 이상 소비 하는 것은 불가능
100인당 초고속통신망 가입자수	30	한국이 2002년 말 21명으로 선두 목표치 30은 90%의 가정이 초고속통신망일 경우 달성 가능
1인당 국제 인터넷 대역폭	10,000	이 목표는 3개국 이미 달성 특히 덴마크는 목표치의 2배 이상임
100인당 인터넷 사용자수	85	아이슬랜드가 65로 최고치 (12-80세 인구의 81%가 인터넷 이용) 목표치 85는 12-80세 인구의 100% 이용시

o 디지털 접근지수 결과 (상위 10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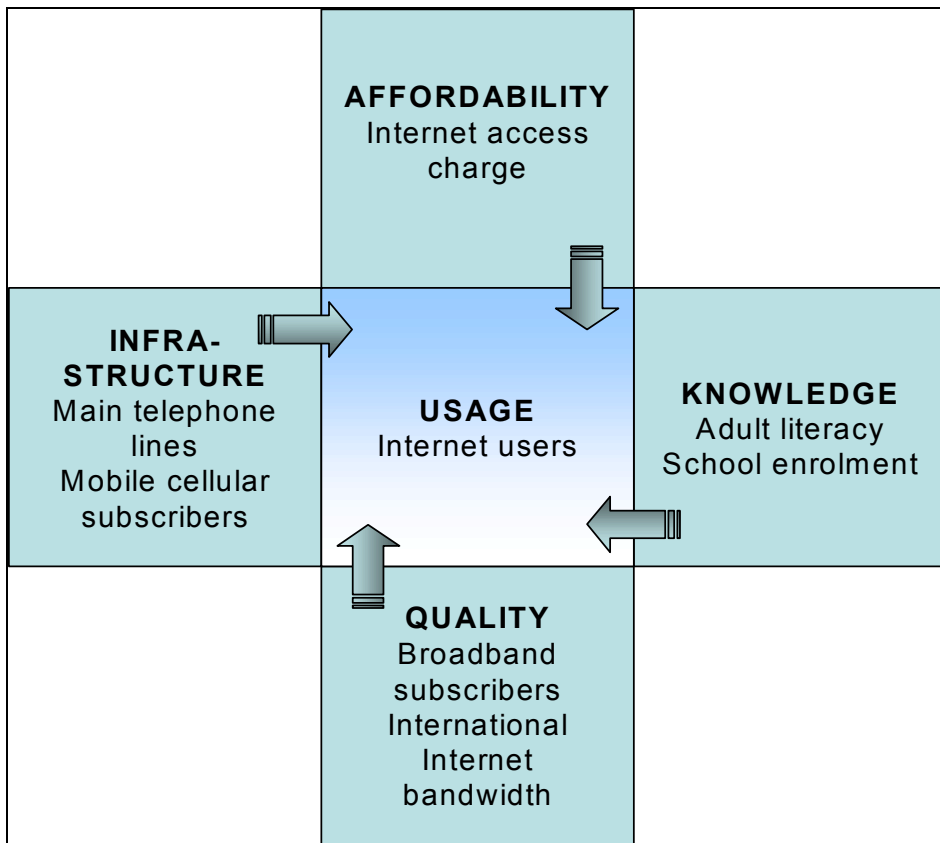
경제(국가)	인프라	지불비용	지식	품질	활용	DAI
스웨덴	0.944	0.985	0.990	0.636	0.674	0.846
덴마크	0.894	0.982	0.990	0.662	0.603	0.826
아이슬랜드	0.886	0.990	0.960	0.501	0.763	0.820
대한민국	0.746	0.971	0.956	0.744	0.649	0.813
노르웨이	0.841	0.992	0.990	0.550	0.591	0.793
네덜란드	0.776	0.983	0.990	0.611	0.596	0.791

홍콩	0.930	0.998	0.833	0.682	0.506	0.790
핀란드	0.809	0.976	0.990	0.546	0.599	0.784
타이완	0.979	0.973	0.950	0.557	0.450	0.782
미국	0.736	0.992	0.970	0.542	0.649	0.778

o 결론

- 기업/가구의 ICT 활용 자료수집에 현행의 모델조사를 이용
- 선진국 및 다자기구는 개도국의 ICT 지표 작성을 지원해야 함
- ICT 정책결정자는 요구되는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자국의 국가통계청과 접촉을 유지해야 함
- 조사는 규칙적으로 실시되어 하며 훌륭한 통계관행은 유지되어야 함

o DAI 개념도



5.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가. 연수 개요



<사진17 WIPO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는 WIPO 한국인직원 민은주님>

o 일 시 : 2004. 6. 15 (화), 14:00~16:30

o 장 소 : Seminar room 315, WIPO

34 chemin des Colombetes, CH-1211, Geneva

o WIPO 측 참석자

- Mr. Takeshi Hishinuma

(Associate Legal Officer, Copyright e-commerce, Technology and Management Division)

- Ms. Cathy Jewell (Chief, Public affairs Division)

- Ms. Eunju Min

나. WIPO 기관소개

(1) WIPO 개관

- WIPO는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임.
 -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의장, 실용 등) 16개 조약과,
 - 저작권(음반, 저작물, 비디오 등) 6개 조약, 기타 1개 조약, 총 23개 조약 관장
- 1893년에 창설된 BIRPI(지적재산권 국제사무소, 베른) 후신으로 1967년 WIPO 조약에 의거 1970년 제네바에 설립됨.

- 2004. 9월 현재 회원국수 : 180개국
 - 우리나라는 1979 3.1 가입

- WIPO 예산 및 분담금
 - 2004-2005년도 WIPO예산 : 639백만 스위스 프랑
 - WIPO 예산수입 94.1%는 PCT등에 의한 자체 수입.
 - 예산 수입의 5.9%는 회원국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 2004년도 우리나라의 분담금 : 45,579 스위스 프랑

- 사무국조직 및 인원
 - 조직
 - 산업재산권, 저작권국, 정보기술국, 4개 지역개발협력국, PCT국 등 40개 부서로 구성
 - 인원
 - 2004년 8월 현재 : 약 938명(95개국 출신)

○ 주요 회의 및 총회

- 5개 분과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 WIPO는 특허법, 정보기술, 상표, 의장, 지리적표시, 저작권, 지재권개발 협력 상설위원회를 두고 정기회의 개최함.
- 각 분야 별로 Working Group을 두고 있음.
- 정기총회, 조정위원회 및 예산위원회가 있음.
 - 우리나라는 조정위 및 예산위 이사국으로 재선출 (2002.10)

(2) WIPO 주요 사업

○ 국제등록시스템의 확장

- WIPO는 다음 3가지 국제등록 업무를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가 WIPO 수입금(Income)임.
 - 국제특허출원제도 (PCT)
 - 국제상표등록제도(Madrid system)
 - 국제의장등록제도(Hague system)

○ 정보기술 프로젝트(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

- WIPO는 21세기를 대비 회원국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3가지 기술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Global Network System (WIPOnet)
 -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 (IPDL)
 - PCT전자출원시스템

○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 지재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 : 교육, 훈련, 세미나 등
- 지재권 인프라 개발지원 : 조직, 시설·장비, 법제 등의 현대화

- 지재권 정보서비스 제공 : 선행기술 자료 등 무료검색 지원
- 개도국 발명진흥, 전통지식 보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등



<사진18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3) 지적재산권 관련 최근 이슈

- o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보호
- o 생명공학 발명 관련 이슈 : 생물다양성, 환경·윤리문제 등
- o 전통지식·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보호
- o 지재권 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 실체적 특허법 조약 추진
- o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인류복지의 상충문제
 - AIDS 물질특허 관련 등

다. 주요 연수내용



<사진19 WIPO 일정을 마치고 연수단일행과 함께>

(1)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

- 디지털하의 대상이 모든 문화상품과 지적생산물로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위해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보호가 필수적
- 보호대상 저작물 범위, 전송권,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 정보의 구축, 온라인사업자의 책임범위 컴퓨터 프로그램, 도메인 네임, 영업모델 (Business Model) 특허 등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임

-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쟁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2000년 저작권법을 개정
 - WIPO 저작권조약의 공중전달권 조항을 도입하여 전송권을 신설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디지털복제를 복제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규정을 신설

(2) 전자상거래와 분쟁해결

-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 제품에 대한 신뢰성, 반품, 지급결제수단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일반상거래에 비해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은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어 분쟁형태도 기존상거래와 차이가 있으며 선례도 많지 않아 소송절차만으로는 해결이 곤란
 - 또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요구되므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중재, 조정과 같은 조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우리 나라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전자거래진흥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속력이 없음

(3) 도메인명 분쟁

- 인터넷의 확산 및 상업적 이용증대에 따라 도메인 명칭은 사업체의 식별기능을 넘어 트레이드마크의 기능을 수행 (예: Amazon.com)
- 제 3자가 타사의 상호 및 이름을 무단으로 선점, 사용하는 것을 cybersquatting 이라 하는데 주요 목적은 원래의 상표권자에게 되팔거나 혹은 관련된 웹트래픽을 유치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도메인 분쟁은 여러 국가간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법원은 관할주의를 채택하기에 도메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WIPO에서는 등록된 트레이드마크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새로 등록하는 도메인명을 이 데이터베이스화에서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

6. 전자상거래와 국제무역

가. 연수 개요

- 일 시 : 2004. 6. 16 (수), 14:00~16:30
- 장 소 : Seminar room B1, Place des Nation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 WTO 및 UNCTAD 측 참석자
 - Mr. Andres Maurer (Chief, Int'l Trade & statistics)
 - Ms. Joscelyn Magdeleine (statistical officer, Int'l Trade & statistics)

- Ms. Scarlett Fondeur Gil (Associate Economic Affairs Officer,
Electronic Commerce Branch, UNCTAD)
- 참관 :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김형수 이등서기관,



<사진20 WTO 방문일정을 마치고 정문 앞에서 연수단 일행과 함께>

나. 세계무역기구 기관소개

(1) WTO 개관

o 설립

- 1995. 1. 1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무역체제를 관장했던 GATT의 후신으로서, 1986-94년간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설립

○ 성격

- 국가 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
- 가능한 한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표

○ 주요 기능

- WTO협정의 운영
- 무역협상의 장(forum)
- 무역에 관한 분쟁 해결
- 각국의 무역정책 검토
-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협력 제공 및 인력 훈련
-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 조직

- 회원국 : 2004년 현재 총 148개국
 - 세계무역의 총 90%를 차지
 - 중국 및 대만은 2001.11월 4차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가입결정
 - 가장 최근 가입국은 캄보디아와 네팔로 2003.9월 5차 칸쿤 각료회의에서 가입결정
 - 러시아 등 25개국이 가입 협상 진행 중

○ 의사 결정 및 기관

- 의사 결정 : 전회원국이 투표 또는 컨센서스로 의사 결정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않고 컨센서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

- 의사 결정 기관
 - 각료회의: 최소한 매2년 개최하며,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
 - 일반이사회: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동안 각료회의의 기능을 대신하며, 연중 수시 개최.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기구로도 기능
 - 일반이사회 산하에 3개 이사회(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및 지적재산권 이사회) 설치
 - 일반이사회 또는 각 이사회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설치
- 사무국
 - 사무총장 산하에 약 550명 직원 근무
 - 의사결정권은 없으며, 각료회의 산하 각 기구의 활동 지원이 주 기능

(2) WTO의 의의 및 기능

- WTO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
- GATT에서와는 달리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
-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법·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는데 노력

- 설립 후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 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
-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 및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新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
 - 타 국가정책에 대한 일방적 강요 등의 압력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편화
 -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이 일부 억제되는 효과 발생

(3) WTO 주요 협정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무역정책 검토 등 제반 분야별 협정을 체결,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규칙 제공
 - 분야별 협정(결정, 양해를 포함하여 약 60여개) 및 각국의 양허표(시장개방 약속)로 구성
- 주요 원칙
 - 최혜국대우: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
 - 내국민대우: 외국산품을 국산품과 동등하게 대우
 -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4) 주요 당면과제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 2001.11.9-14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 약속
 - 뉴라운드라는 명칭 대신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는 용어 사용
 - 농업, 서비스, 비 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협상 출범
 -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소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방식을 결정한 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2002.1.28 1차 무역협상위원회(TNC) 개최, 협상기구 및 의장단 확정

- 2003.9.10-14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계획한 협상 modality 및 기타 분야별 이슈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지 못하고 종료

- 그러나, 2004.7.27-8.1 일반이사회 계기에 협상 기본골격 (framework)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협상 시한을 2004.12월에서 2005.12월로 연장 (8.1 새벽 1시 기본골격 타결)
 - * 동 DDA 관련 최신정보 웹사이트
 - <http://www.wto.org>
 - <http://www.wtodda.net/index.php>

○ 가입 촉진

- 러시아, 베트남 등 주요 무역국의 WTO 가입협상 계속
 - 25개국의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나, 장기간 소요 중

- 가장 최근 가입한 국가는 캄보디아(148번째)와 네팔(147번째)

○ 개도국 지원

- 회원국의 3/4이상이 개도국이나, 국제무역은 사실상 선진국 및 일부 선발 개도국이 주도
- 다수 개도국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확대 필요
 - 제4차 카타르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개발 아젠다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및 특별우대를 특히 강조

○ 연관 분야 정책과의 일관성(coherence) 유지

- Globalization의 진행으로 금융, 환경, 소비자 보호, 노동 등 문제와 무역문제 간 연관성 심화
-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여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와의 협력 또는 대화 증진 필요

(5)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뉴라운드에 대한 입장

①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 우리나라는 95.1.1 WTO 출범 시 창립회원국으로 참가
- WTO의 전신인 GATT에는 67.4.14 가입

○ 우리나라는 무역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WTO 내에서의 위상에 비추어 WTO의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 WTO회원국 중 무역규모 제13위

②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우리 입장

○ 광범위한 협상 추진

- 해당 협정 규정상 2000.1.1부터 추가 자유화 협상이 개시된 농업, 서비스 분야에 추가하여, 공산품 관세 인하, 반덤핑 등 기존 규범의 명료화 등 광범한 분야에 대한 무역협상 추진
- 대부분의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다만 농산물 분야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배려하는 점진적, 신축적 자유화를 추진

○ 협상 결과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채택

다. 주요 연수 및 토의내용

(1) 전자상거래 관련 WTO와의 회의

- 디지털 경제의 대표적 상거래 유형인 전자상거래의 정의 및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WTO측의 의견청취
 - WTO측은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으로 교환 또는 계약되는 모든 유형의 상거래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 전형적 예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되는 형식으로 디지털 제품이 매매되는 경우를 소개
 -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의 관계에 대하여 WTO측은 e-비즈니스는 ICT를 적용한 기업내부의 프로세스 혁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서, 기업과 기업 혹은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에 주로 관심을 두는 전자상거래보다 더 포괄적 개념임을 설명
 - 정책연수단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 디지털 제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WTO측이 디지털 제품에 대한 바람직한 교역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
- *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 : 영화, 게임, 음악 등 디지털적으로

처리되는(encoded) 모든 유형의 소프트웨어

- 연수단은 디지털 제품의 거래가 한싱 및 한일 FTA에서 주요 관심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WTO 내 디지털 제품 분류(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논의동향을 질의
 - WTO측은 WTO 제2차 각료회의('98.5.20일, 제네바)에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digital product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관행을 연장하기로 결정(참고1 참조)한 이후 무관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동 이슈에 대한 WTO의 입장이 명확히 정립될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힘들다고 설명
- 연수단은 전자상거래가 거래비용의 절감 및 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국가간 교역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는 WTO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 이에 대하여 옵저버로 참석한 Ms. Scarlett Fondeur Gil은 국가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UNCTAD가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한국 전자상거래 정책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에 있어 연수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

(2) 관찰 및 평가

- WTO와 UNCTAD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수준이 한층 제고되었다고 평가됨

- 귀국 후 Mr. Andreas Maurer와 Ms. Scarlett Fondeur Gil은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에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자료 송부를 요청하여 우리 측이 관련자료를 WTO와 UNCTAD에 각각 송부

(3) WTO 內 digital product에 대한 관세부과 논의

① 논의 배경

- WTO에서 digital product에 대한 관세부과 논의는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을 상품, 서비스, 아니면 제3의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
 - 상품으로 분류시 GATT가 적용되며 관세부과 가능
 - 서비스로 분류시 GATS가 적용되며 관례상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은 무관세로 이루어지므로 관세부과 불가(수량제한은 가능)

② 논의 경과

- '98.2.1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규범화(codification) 제안
- '98.5.20일 제네바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세계 전자상거래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채택
 - '99년 제3차 각료회의까지 관세부과의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신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시한부 동결조치 선언
- '99.12월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에서부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고, 영구무세화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자는 일반적 합의에 이름

7. 한국의 디지털경제통계



<사진21 SFSO에서 한국 디지털경제통계에 관하여 프리젠테이션하는 모습>

가. 개요

- 장소 : 영국통계청(ONS), 스위스통계청 (SFSO), 국제통신연합(ITU) 등
- 주요 내용 : 한국의 디지털경제통계 작성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요약 자료

나. 주요 내용 요약

(1) Introduction

- 21세기는 디지털 경제 시대임. 디지털 경제에 대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미국 상무성에서는 생산, 판매 및 재화/용역의 획득이 디지털 기반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로 정의하면서 주로 ICT 산업과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음. 한편 OECD는 정보사회와 정보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ICT 산업, 콘텐츠, 전자상거래와 정보화 격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한국에서도 디지털경제의 기반인 ICT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편, IT 기술의 보급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은 IT산업이 경제성장, 물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IT산업의 확산도, 구조변화 및 IT산업의 기반에 관련되는 통계적 뒷받침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음
- 한국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ICT 통계의 작성은 통계청,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기관 (산하기관 포함)의 디지털 경제에 관한 최근 통계/지표를 아래의 분야 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전자상거래,
 - ICT 산업,
 - 기업에서의 ICT 활용
 - 개인 및 가구의 ICT 활용

(2) 전자상거래

- 통계청에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간의 전자상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월간 사이

버쇼핑몰(B2C)조사, 분기별 전자상거래 기업체조사(B2B) 및 기업·정부간(B2G)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통계청은 전자상거래를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 개념에 의해 전자상거래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 ① 네트워크란 인터넷 프로토콜 통신망과 그 외의 컴퓨터를 매개로 한 모든 통신망을 포함하며,
- ② 거래란 상품 및 서비스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경제주체간의 거래로서 (내부거래는 제외),
- ③ 거래의 여러 과정 중에서 최소한 입찰/계약/주문 절차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전자상거래로 정의함.

- B2C 부문의 조사대상은 현재 B2C 거래가 활발한 사이버쇼핑몰로 하며, B2C 전체 현황 및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전수조사를 실시함. 사이버쇼핑몰조사의 조사항목은 일반항목, 전자상거래 인프라, 전자상거래 확산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입항목 등임.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사이버쇼핑몰의 경우 도메인 등록기관, 지불대행업체, 검색엔진을 통하여 모집단의 파악이 가능하며, 2004년 6월 현재 사업체수는 3,500 여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B2B 조사는 분기조사로서 대기업, 전자상거래 관련기업 및 이-마켓플레이스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의 규모/추세/계획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음. B2B는 여러 형태의 EDI, CALS 및 e-market place형태로 나타나기에 모집단 파악이 쉽지 않음. B2B 시스템의 구축에는 상당한 초기투자 비용이 소요되므로 e-비즈니스 조사대상 후

보로서 대기업과 전자상거래 관련기업을 선정한 것임



<사진22 ONS에서 한국 디지털경제통계에 관하여 프리젠테이션하는 모습>

- o B2B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장 이전부터 주로 대기업에 의해 EDI, CALS 및 엑스트라넷의 형태로 수·발주 시스템, 재고관리, 공급자 관리 등의 업무 process에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그 거래기반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 o 조사항목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변경되어 왔는데 주로 거래액의 파악에 초점을 두어 왔음. 조사단위는 기업체이지만 기업체 내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식별하여 매 시스템별로 실적을 조사하고 있음. 즉,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체 전체의 구매액/매출액 대신에 자사 시스템의 실적을 시스템별로 작성하고 있음

- 2000년 말 정부조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01년 1/4분기부터 B2G 조사가 기존 B2B조사에 통합되었음. 공공부문은 막강한 구매력으로 사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전자상거래 발전에 선도역할을 하고 있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3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235조 25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57조 2,150억원(32.2%) 증가하였음
거래주체별로 보면 B2B가 206조 8,140억원 (88.0%), B2G가 21조 6,340억원 (9.2%) 그리고 B2C가 6조 950억원임 (2.6%).

<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

(단위 : 십억원,%)

	2002	2003		증감률
전자상거래	177,810	235,025	100.0	32.2
기업간 (B2B)	155,707	206,854	88.0	32.8
기업·정부간 (B2G)	16,632	21,634	9.2	30.1
기업·소비자간 (B2C)	5,043	6,095	2.6	20.9
기타	427	442	0.2	3.5

자료 : 통계청

- B2B를 거래기반별로 보면 인터넷 기반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비인터넷 부문 (전통적 edi) 은 3.6%에 불과함
B2B를 거래 성격별로 보면 개방형거래와 협력형 거래가 각각 23.2%와 76.8%를 차지함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146조 1,620억원으로 70.7%를 차지하며, 도소매업이 41조 1,170억원(19.9%), 건설업 9조 6,640억원 (4.7%)

순임.

< 주도형태, 네트워크, 거래의 공개성 유무, 산업별 B2B 전자상거래 >

(단위 : 십억원)

		2002	2003
B2B 전자상거래		155,707	206,854
주도형태	구매자 중심형	113,254	150,688
	판매자 중심형	36,509	48,766
	중개자 중심형	5,944	7,400
네트워크 기반	인터넷 기반	147,419	199,448
	비인터넷 기반	8,288	7,406

		2002	2003
B2B 전자상거래		155,707	206,854
경쟁성/공개성	개방형	33,656	47,949
	협력형	122,051	158,905
산업	제조업	117,974	146,162
	전기가스수도	1,070	2,289
	건설업	5,774	9,664
	도소매업	25,730	41,117
	운수·통신업	3,721	4,690
	기타 서비스업	1,438	2,931

자료 : 통계청

(3) ICT 산업

- ICT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임. 통계청에서는 1998년부터 ICT 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포괄범위는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통신업,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임.

- ICT산업의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는 산업별 통계조사에서 ICT 산업을 별도 집계하여 작성.

< ICT 통계작성에 이용하는 통계조사 >

	조사명	범 위	조사단위	조사방법
제조업	광공업통계조사	전수조사 (5인이상 사업체)	사업체	면접타계식
도소매업	도소매업통계조사	표본조사	사업체	면접타계식
통신업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전수조사	기업체	전화조사 우편조사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전수조사	기업체	전화조사 우편조사

- 주요 작성항목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 매출, 유형고정자산, 부가가치 등임
- 2002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ICT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667,222 명으로서 전산업 종사자의 4.6%를 차지하였음. 부가가치는 전년에 비해 19.2% 증가한 77조 3,780억 원으로서 전체 부가가치의 1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즉, ICT 산업의 종사자수는 4.6% 이지만 부가가치는 12.9% 에 달해 종사자수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ICT 산업 통계 >

(단위 : 명, 십억원, %)

	2000		2001			2002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종사자수 (전산업)	13,604,274	100.0	14,336,604	100.0	5.4	14,608,322	100.0	1.9
ICT 산업	627,753	4.6	646,558	4.5	3.0	667,222	4.6	3.2
(ICT 제조)	(368,376)	(2.7)	(353,652)	(2.5)	(-4.0)	(363,081)	(2.5)	(2.7)
(ICT 서비스)	(259,377)	(1.9)	(292,906)	(2.0)	(12.9)	(304,141)	(2.1)	(3.8)
부가가치 (전산업)	514,054	100.0	550,008	100.0	7.0	602,092	100.0	9.5
ICT 산업	66,796	13.0	64,903	11.8	-2.8	77,370	12.9	19.2
(ICT 제조)	(47,465)	(9.2)	(42,294)	(7.7)	(-10.9)	(49,296)	(8.2)	(16.6)
(ICT 서비스)	(19,331)	(3.8)	(22,609)	(4.1)	(17.0)	(28,074)	(4.7)	(24.2)

(4) 기업에서의 ICT 활용

- 기업에서의 ICT 활용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의 디지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는 기존조사에 ICT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조사로서는 2002년 실시한 2001년 기준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가 있음.

①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 2001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에서는 ICT 활용과 관련하여 PC/서버 보유 유무, 인터넷 PC 및 홈페이지 보유유무, 전자상거래 활용에 관한 항목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는 산업별·지역별로 ICT 통계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 사업체(2,139,878) 중 57,527 사업체(2.7%)가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617,343 사업체(28.8%)가 PC를, 464,180개 사업체(21.7%)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보유하고 있음.
-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의 PC 보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92.4%), 음식숙박업이 가장 낮았음(4.3%).
- 총 64,910개 사업체(3.0%)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31,000개 사업체(1.5%)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음.
- 홈페이지 보유율은 금융보험업(15.6%), 사업서비스업(15.4%), 통신업 (15.2%) 순으로 높았음.
- 전자상거래 활용은 통신업(15.8%)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금융보험(8.8%), 사업서비스업 (5.7%) 순임.

< 서비스 산업의 전산장비 보유 >

(단위 : 개, %)

Industry	보유 여부					
	서버		PC			
			인터넷		PC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사업체수	비율
합계	57,527	2.7	617,343	28.8	464,180	21.7
도소매업	11,663	1.4	224,909	26.9	166,338	19.9
음식 숙박업	836	0.2	23,631	4.4	15,639	2.9
통신업	1,595	22.4	6,079	85.3	5,266	73.9
금융 보험업 ^e	10,304	30.7	31,047	92.4	28,693	85.4
부동산 및 임대업	1,153	1.4	49,464	58.2	30,962	36.4
사업서비스	9,086	13.8	52,137	79.5	44,609	68.0
교육서비스	11,683	11.7	61,708	61.8	50,065	50.1
보건 및 사회복지	3,312	5.5	50,994	85.1	36,902	61.6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	5,309	5.3	42,509	42.2	32,707	32.4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	2,586	0.8	74,865	23.9	52,999	16.9

자료 : 통계청

〈 서비스 산업의 홈페이지 보유 및 전자상거래 활용 〉

(unit : %)

산업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활용				미활용
			on area of				
	개설	미개설	판매 및 구매	판매	구매		
합 계	3.0	97.0	0.5	0.3	0.7	98.5	
도소매업	2.1	97.9	0.6	0.5	0.5	98.4	
음식 숙박업	0.3	99.7	0.0	0.0	0.1	99.8	
통신업	15.2	84.8	7.9	3.5	4.5	84.2	
금융 보험업	15.6	84.4	3.8	2.5	2.5	91.2	
부동산 및 임대업	3.0	97.0	0.5	0.3	0.6	98.6	
사업서비스	15.4	84.6	1.8	0.9	3.0	94.3	
교육서비스	14.1	85.9	0.3	0.1	2.9	96.7	
보건 및 사회복지	5.7	94.3	0.3	0.1	2.5	97.1	
오락, 문화, 운동관련 서비스	2.2	97.8	0.2	0.1	0.8	98.9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	2.1	97.9	0.1	0.1	0.4	99.4	

자료 : 통계청

② 정보화 통계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에서는 1999년부터 기업의 정보화에 관한 연간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002년에는 종사자수 5인 이상 5,286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음.

- PC/홈페이지 보유 여부

- 네트워크/인트라넷 구축
- 전자상거래/인터넷 활용
- 정보화투자
- 정보화교육 등

○ 2003년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의 80.8%가 PC를 보유하고 있으며, 40.7%가 네트워크를, 17.9%가 인트라넷을, 33.5%가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9.8%가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음.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 5인 이상 총사업체 442,655 중 전체, 1000인 이상, 300-999인, 50-299인, 10-49인, 5-9인 사업체의 인터넷 보유율은 각각 314,727 사업체(71.1%), 100%, 98.8%, 94.8%, 85.0%, 58.8%임.
- 즉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인터넷, 인트라넷,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활용율이 높았음. 2001년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 활용업체는 43,380 사업체(9.8%)로서 종사자 5-9인의 경우는 7.0%인 반면 종사자 1000인 이상인 경우는 36.7%로 나타났음.

< 종사자 규모별 기업의 ICT 활용 (2003 상반기)>

	계	5-9인	10-49인	50-299	300-999	1000 이상
인터넷 보유율	79.7	70.5	90.6	97.8	99.3	100.0
인트라넷 보유율	23.5	14.6	32.8	45.7	70.5	87.9
홈페이지 보유율	27.9	27.7	51.4	74.0	89.3	96.7
전자상거래 활용율	23.5	20.7	26.1	32.4	40.3	53.8

자료 : 한국전산원

- ICT 활용을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의 네트워크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보급률은 94.3%임. 금융보험업은 인터넷 및 홈페이지 보유율도 높으며, 전자상거래는 중공업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별 기업의 ICT 활용(2003 상반기) >

(Unit:%)

산업	인터넷	인트라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계	79.7	23.5	27.9	23.5
농업/광업	68.6	19.3	31.4	20.3
경공업	74.5	13.2	30.1	15.2
중공업	84.9	17.9	38.2	16.9
석유/화학	83.2	14.1	44.4	20.9
건설업	94.0	11.3	17.2	33.8
유통업	64.0	22.4	33.5	20.6
금융보험업	98.2	77.9	84.2	27.3
기타 서비스업	90.7	24.4	46.2	29.1

자료 : 한국전산원

(5) 가구/개인의 ICT 활용

- 가구에서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는 1997년과 2000년 사회통계조사에 ICT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1년에는 가구 및 개인의 ICT 활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간 정

보화실태조사를 개발하였음. 2003년 이 조사는 정보통신부로 이관 되었음.

- 2003년 상반기 조사는 7,200 표본가구 (6세 이상 가구원 21,000 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음.
 -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사용
 - 인터넷 이용형태 (시간, 빈도, 활동유형)
 - 인터넷 사용 및 미디어 사용 형태
 -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이용
 - 인터넷 관련 활동
 - 전자상거래 이용
 - 인터넷 비사용 이유

- 주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 6세 이상 한국인의 64.1%는 최소 1개월에 1번 이상 인터넷을 사용 하며, 인터넷 인구는 2,860 만명으로 나타났음.
 - 20-29세에서 인터넷 이용이 94.3% (767만명)로 가장 높고, 이어서 6-19세 91.3% (863만명), 30-39세 78.5% (685 만명)의 순 입.

- 남자의 74.9% (1672만명)와 여자의 62.7% (1399만명) 가 컴퓨터 사용자임.
 - 월소득 4백만원 이상 가구의 80.6%가 컴퓨터 사용자인 반면 월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는 31.6%에 불과함

- 12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의 32.0%가 지난 6개월간 1번 이상 전자 상거래 구매 경험이 있으며, 여자의 전자상거래 경험은 37.6%인 반

면 남자는 27.4% 임

< 가구와 개인의 ICT 활용 (2003 상반기)>

(unit: %)

	Households with		Population		
	PCs	Internet Access	컴퓨터 사용능력	인터넷 이용	전자상거래 이용
계	77.9	68.8	70.1	68.8	39.9
남			76.1	74.6	35.1
여			64.1	63.0	45.7

	Households with		Population		
	PCs	Internet Access	컴퓨터 사용능력	인터넷 이용	전자상거래 이용
초등 졸 이하			55.1	53.2	16.1
중졸			50.6	49.3	34.8
고졸			73.2	71.9	37.5
대졸 이상			93.1	92.3	51.0
6 ~ 19세			97.8	96.0	29.6
20 ~ 29			97.8	97.1	54.1
30 ~ 39			87.3	86.0	41.6
40 ~ 49			58.3	57.5	29.4
50 ~ 59			28.5	26.3	22.3
60 세 이상			7.6	6.1	14.1
전문/관리직			91.1	90.9	51.1
사무직			94.3	93.5	44.3
서비스/판매직			58.5	56.8	29.5
생산직			41.4	39.4	24.2
학생 및 기타			73.0	71.7	41.0
1 백만원 미만	33.3	28.7	35.8	34.1	40.1
1 ~ 2	81.3	73.2	71.4	70.1	35.6
2 ~ 3	92.7	85.1	79.9	78.7	40.1
3 ~ 4	95.5	91.4	82.5	81.5	41.8
4 백만원 이상	97.6	92.7	83.3	82.1	49.8

ource: KRNIC (2003)

Ⅲ. 연수 후기

디지털경제통계 작성기법 정책연수과정을 마치고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金 泰永

축구의 종주국으로 셰익스피어가 잠들어 있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통치했던 나라, 알 폰스 도태의 하이디소녀를 잉태한 알프스와 융프라우 그리고 레만호 같은 아름다운 호수가 여럿 있는 나라...,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나마 이처럼 동경해보던 나라를 가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정말 우연한 기회를 접하고 내심 기쁘기까지 하다.

영국과 스위스 두 나라로 이어지는 디지털경제통계 작성기법 연수를 목적으로 통계청 직원 8명, 산업자원부 3명, 행정자치부 1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우리 연수단은 12일간의 긴 여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물품을 점검하는 등 각자의 준비물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6월 8일 11시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한 우리는 13시 30분발 파리행 대한항공(KE901)편에 몸을 싣고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18시 25분(현지시간)에 파리 샤를드골 공항을 경유하여 20시 20분에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겼다. 일행 중 절반 이상의 사람이 짐을 찾을 수 없어 확인한 결과 프랑스 항공사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짐이 오지 않은 것이다.

다음날 숙소로 짐을 전해준다는 다짐은 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전용버스에 올라 런던 번두리에 위치한 숙소(Ramada Encore Hotel)에 도착 후 숙소를 배정받고 여장을 풀었다.

이곳 영국은 한국과 8시간의 시차가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6월 8일은 8시간을 더으로 더 사는 것 같았고,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의 해가 길어 밤 9시인데도 밝은 흰히 밝아 매우 신기하고 흥미롭기만 하였다. 그래도 오랜 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 탓인지 우리는 이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6월 9일 5시경 일찍 눈을 떠보니 날이 흰하다.

오늘은 9시 30분에 영국 무역산업부(DTI)를 공식 방문하는 날이기에 아침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서둘러 준비를 하다보니 참으로 난감한 일이 생겼다.

정장 등 의복류 대다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짐 속에 있었던 것이다. 숙의 끝에 외국기관을 공식 방문하는 관례상 불가피하게 정장이 준비된 일행 7명만 참석, 나머지는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현지로 이동하였다.

오후에는 중국인 거주지역인 Soho에서 중국식 점심식사(딤섬:만두)를 마친 후 버킹검궁전과 근위병교대식,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 트라팔가 광장,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등 런던 시내에 소재하는 명소를 두루 살펴보았다.

이곳 런던의 첫인상은 17~18세기 도시와 현대문명이 혼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비록 시내 중심가이지만 건물과 도로는 옛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새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 기존 양식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건축이 허가된다는지 왕복 2차선의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를 별다른 불편 없이 2층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면서 옛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국민성을 잠시 엿볼 수 있었다. 한편, 공중화장실은 모두 유료로 1인 1회당 20펜스(한화 약 420원)를 지불해야만 용무를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 일행은 두 번째 방문지인 영국통계청(ONS)으로 향했다.

정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담당자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회의실로 우리를 안내한다. Mr Tony Calton씨를 비롯하여 우리를 위해 웨일즈 지방에서 약 2시간거리를 달려 온 Mr Peter Goodridge 등 회의에 참석한 영국 통계청직원의 인사소개가 있는 후 『Information Technology in Society and Economy』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부문별 담당자의 presentation이 있었고 우리 측에서는 서 찬일 사무관이 ICT통계에 대한 presentation을 마친 다음 양측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내용 중에 영국은 1998년부터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또는 판매에 관한 통계(예로 인터넷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98년 9% → '03년 48%)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ICT활동부문의 총 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와 연계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보고서 참조)

점심식사 후 빈 시간을 이용하여 런던 시내에 소재하는 약 70만평 규모의 하이드파크에서 잠시 산책을 즐기고, 자연사박물관(The Natural History Museum), 테임즈 강, 국회의사당, 웨스터민스터 사원과 「애수」로 이름이 알려진 워털루브리지 등의 명소 관람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맥주한잔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정각 6시가 되니 모든 상가는 문이 닫히고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보고서야 우리도 숙소로 향할 수 밖에 없었다.

6월 11일 DTI 정보경제과 방문을 마친 후 영국에 온지 처음으로 런던 시내를 벗어나 인근 명소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다. 전용버스로 1시간 가까이 달리니 11세기 윌리엄 1세가 런던 서쪽 약 40km지점에 템즈강을 굽어보는 작은 언덕에 세운 천연요새 윈저성에 닿을 수 있었다. 근위병 교대식, 성안의 장식품 등을 둘러 본 후 1200년경에 설립된 옥스퍼드대학으로 향했다. 옥스포드는 마치 중세기의 한 도시를 송두리째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럴 것이 대부분이 13~15세기 경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리에 물결치는 인파는 세계 각지에서 수재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옥스포드 대학생이 대다수로 그들의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듯하였다. 한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중세도시 속에 서 있다는 흥미함에서 깨어나 우리 일행은 옥스포드를 뒤로 할 수 있었다.

영국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 일행은 6월 12일 12시 5분 영국항공편으로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여 2시간 50분정도 비행 끝에 다음 방문지인 스위스 취리히에 도착하여 현지가이드와 상면 후 전용버스편으로 2시간 남짓 고속도로를 달려 베른(Bern)에 있는 숙소(Sternen Muri)에 여장을 풀었다.

영국과 스위스 사이에는 약 1시간의 시차가 있다고 한다. 또한 6월 평균기온은 낮은 22 °C, 밤 14 °C 정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비교적 선선한 날씨다.

스위스에 도착하여 첫 밤을 보낸 일행은 공식 행사가 없는 짬을 이용하여 알프스 영산인 융플라우와 티틀리스를 등정하기로 하였다. 인터라켄오스트에서 출발한 톱니바퀴 열차는 해발 4158m인 융플라우(Jungfrau), 3970m 아이거(Eiger), 4107m 뫼히 등 3대봉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해발3454m 높이의 융플라우요흐(Jungfraujoch)에 오르면 후 여기서 크라이네 샤이텍(Kl. Scheidegg)에서 아이거 북벽 길을 거쳐 그린덴발트(Grindelwald)로 내려오는 길은 과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장관이었다.

다음 등정지인 티틀리스(Titlis)를 오르기 위해 루체른(Luzern)을 지나 엥글베르그(Engelberg)에 도착한 일행은 케이블카로 약 45분을 달리니 해발 3,020미터의 티틀리스정상에 오른다. 사방으로 펼쳐진 산봉우리에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다. 하산 길에 케이블카에서 내려 보이는 알프스 산기

습에는 양떼들이 유유히 뛰어노는 그림 같은 전경이 한눈에 펼쳐 들어 온다.

6월 14일 여장을 챙겨 베른의 숙소를 나온 우리 일행은 전용버스편으로 노이샤텔 호반을 따라 한 동안 달려 노이샤텔시 소재 스위스통계청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에 도착하니 정문에서 담당직원이 반갑게 맞아준다.

회의실에 오른 우리 일행은 아름다운 노이샤텔 호반이 한눈에 내려 보이는 장소에 스위스통계청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부러움이 앞선다.

회의실 밖 로비에 준비된 커피 등 음료를 마시며 양측의 인사가 있는 다음회의는 1860년에 설립한 스위스통계청 조직 전반과 the Division Economy, State and Social Issues 활동의 소개, 「스위스 정보사회 지표」 및 「EU의 프로젝트 “SEAMATE” 의 참여」 등을 주제로 한 스위스 측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ICT통계 전반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이 있는 다음 의견교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특기사항은 2003년 캐나다에 조직진단을 의뢰 후 분석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였으며, 국민계정을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자료 수집 대부분이 행정통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비록 정확도나 응답률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E-census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EU에서 국민계정 등을 체계화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SEAMATE(Socio Economic Analysis and Macro-modellic of Adapting To ICT in Europe) Project에 참여하여 현재 과거자료의 문제점과 불일치 자료 등을 대상으로 한 검토·분석이 진행되는 등 유용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활발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제네바로 가는 길에 우리일행은 올림픽의

메카 로잔에 잠시 들러 레만 호 작은 언덕에 위치한 올림픽공원과 레만 호 그리고 인근에 있는 시옹성(Chateau de Chillon)을 둘러 보았다. 이곳 로잔에서 시옹성으로 가는 길에 레만호를 따라 넓고 끝없이 펼쳐지는 포도원(버스로 약 25분 정도를 달리는 거리)은 매우 인상적으로 수확기에는 배낭여행족이 경비를 벌 수 있는 최적의 소득원(숙식 제공하고 1인 1일당 약 10~15만원정도 수입 가능)중 한 곳이라고도 한다.

시옹성에서 레만 호변 고속도로를 따라 2시간 30여분을 달리니 레만 호의 끝이 보이는 제네바에 도착할 수 있었다. 로잔, 노이샤텔 지역처럼 불어권인 이곳 제네바는 유엔기구가 집중되어 있어 그런지 다른 도시에 비해 움직임이 비교적 분주해 보인다. 저녁식사 후 공항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여장을 푼다.

6월 15일 오늘부터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UN기구를 3일 연속 방문해야 하는 공식일정으로 매우 분주하다.

ITU를 방문한 우리 일행은 인사소개가 있는 후 「ITU통계활동」과 「Statistics in perspective : ITU's Digital Access Index(DAI) and Internet Case Studies」에 대해서 ITU측의 Taylor Reynolds씨와 Vanessa Gray씨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견교환이 있었다. 「ITU통계활동」의 Topics은 ITU Telecommunication/ICT 지표데이터 선정, 도전, Meetings/Workshops, 국제협약, Digital Access Index(DAI)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Digital Access Index(DAI)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설명이 있었다.

여기서 한국은 ITU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ICT부문의 선진국이라는 인상을 받아 매우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어 다음방문기관인 WIPO로 향하

는 발걸음이 한층 가볍기만 하였다.

1883년에 오픈된 WIPO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에 대한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 한국인과 일본인 담당자로부터 WIPO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우리일행은 제네바시내의 한 바에서 생맥주 한잔으로 자축하며 레만 호의 야경을 즐길 수가 있었다.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을 하루 앞둔 오늘은 프랑스령에 있는 해발 4807m의 샤모니몽블랑(Chamonix mont blanc)을 올라 보기로 하였다.

전용버스편으로 제네바에서 프랑스령을 넘어 샤모니 마을에 들어서니 온통 만년설로 뒤덮인 몽블랑 경관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몽블랑은 케이블카로 등정하여 해발 3842m의 에규디미디봉(Aiguille de Midi)에서 바라보아야 가장 근접에서 볼 수가 있지만 마침 금년 7월까지 케이블카 보수기간이라 반대편 해발 2525m의 브레방(Le Brevant) 정상까지 케이블카로 오를 수 밖에 없었다. 정상에 올라 정면으로 바라 보이는 몽블랑의 만년설과 그 사이를 가로 지르며 수없이 떠도는 페러글라이딩群的 한데 어우러짐은 참으로 장관을 이룬다.

샤모니의 전통식인 풍두로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는 몽블랑의 감흥을 가슴에 담고 숙소로 향한다.

6월 18일 짧지만 긴 연수일정을 모두 마친 오늘은 드디어 귀국길에 오르는 날이다. 여장을 챙기고 숙소를 나온 우리는 11:05발 비행기(LH 5367편)

에 오른지 1시간여 만에 중간기착지인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약 5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어 공항내 상점에서 쇼핑 등으로 시

간을 보낸 후 17:45발 KE 906편으로 약 10시간 정도를 달리니 한국시간으로 6월 19일 13시 인천공항에 닿을 수 있었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가진 11박 12일의 유럽연수일정에서 겪었던 여러 체험들이 어느 정도 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나름대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인생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번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연수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찬일 사무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지털 경제통계 측정에 관한 정책연수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류창진

1. 연수개요

지난 6월 8일부터 12일 동안 통계청을 포함한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의 12명이 영국(ONS¹⁾, DTI²⁾), 스위스통계청, 국제기구(ITU³⁾, WIPO⁴⁾ 등)에 방문하여 디지털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생애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라 많은 기대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는 길이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지만 첫날 영국 땅에 발을 내딛고 현지인들과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예정된 기관을 방문하여 디지털 경제통계 현황과 관심사항을 듣고 우리나라의 현황을 소개하는 양자간 협력형태로 회의가 이루어 졌으며, 특히 방문기관에서 우리나라 디지털관련 성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러 기관 방문일정 속에 현지체험 시간을 갖게 되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음식, 자연환경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인위적인 문화유적의 보고(寶庫)로 생각되었고, 스위스는 아름다운 자

1) ONS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 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3)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4)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연의 보고(寶庫)로 요약 할 수 있었다.

2. 영국방문

1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내린 영국 런던의 히드로 국제공항⁵⁾은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여서, 안개와 비의 나라로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고, 영국에 머무르는 동안 운 좋게도 거의 매일 맑은 날이 계속되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전날의 여정으로 피곤한 채 첫 방문기관인 DTI를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디지털 경제과 담당자의 안내로 회의실로 들어가 「The International Benchmarking Study 2003 - Business use of ICTs」 주제로 우리나라와 G7국가간의 비교지표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우리나라에 대해 상세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DTI의 국가별 벤치마킹자료를 볼 때 상당히 많은 항목(주항목 11개 등)의 결과를 내면서도 CATI방법이면서 전체 응답률이 25%(우리나라: 500개 중 13%)에 그쳐서 약간의 취약성을 안고 있었으나 동일한 항목에 대한 지표들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영국통계청(ONS)에 방문하게 되어 과장님의 직원소개와 영국직원과의 인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원탁형태로 배치된 자리에 앉아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ONS에서 준비한 여러 발표 자료를 들었고, 이어 우리나라의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영국의 국제공항 : 히드로(런던 중심부), 개트윅(런던 남쪽), 맨체스터(랭커셔 주), 글래스고우(스코틀랜드) 등 4개 국제공항이 있음.

ONS에서는 전자상거래 자료를 비율단위로 조사하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거래액단위로 작성하는 전자상거래 자료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예정된 시간이 훨씬 초과되어 회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무리 하고 영국박물관의 엄청난 양의 외국유물과 국립미술관에서의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흐, 모네의 명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런던 중심부에 넓게 위치한 하이드파크를 한가롭게 거닐어 보기도 하였다.

영국의 모든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예술품같이 느껴졌으며 숨은 영국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입헌군주제인 영국의 독특한 제도에 따른 건물들 버킹검 궁전/ 윈저성, 국회의사당 등이 모두 관광거리로 수백 년간 이어져온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거리에서 만난 영국인들은 항상 웃음과 넉넉함을 잃지 않는 듯했으며, 심지어 날아온 공에 맞더라도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웃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3. 스위스 방문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하여 전용버스를 통해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까지 1시간 가량 이동하여 한적한 호텔에 묵게 되었고, 런던과는 달리 상당히 조용하고 자연과 도시가 상당히 잘 어우러져 있어 보다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기가 풍부하여 대부분의 도시에는 전동차가 운행이 되었고, 런던이나 서울과 같이 자동차가 북적되지도 않았으며, 도심을 약간만 벗어나도 방목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물론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다.

스위스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다국어로 수도 베른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고, 국제도시인 제네바나 스위스 연방통계청이 있는 뇌샬은 프랑스어가 통용되었지만 대부분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서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

스위스의 첫 방문기관인 스위스 연방통계청은 작은 도시인 뇌샬에 위치해 있었고 최근에 이사해 온 현대식 건물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상당히 전경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회의 전에는 커피와 쿠키가 준비되었고, 회의 후에는 와인과 빵이 마련되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

스위스 통계청에서는 1년 전에 개편된 조직소개와 스위스 정보사회지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였고, 또한 EU 프로젝트인 SEMATE⁶⁾에 관한 개념도를 소개하였다. 즉 SEMATE는 ICT의 준비(readiness), 확산(intensity), 영향(impact), 결과(outcome) 등으로 분류하여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개념도에서 아직까지 준비 및 확산단계 수준까지만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ICT의 영향이나 결과분석 단계를 위한 개념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6) SEAMATE : Socio-Economic Analysis and Macro-Modelling of Adapting to ICT in Europe.

스위스 제네바로 이동하여 국제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각종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 우리가 방문할 ITU도 자리하고 있어 예정된 시간에 방문하였다. ITU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Internet case study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ITU 관계자 중 뜻밖에도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하여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는 직원을 만나게 되어 회의 분위기가 보다 편하게 느껴졌다.

여기서는 특히 DAI⁷⁾작성·공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웨덴(0.828), 덴마크(0.820), 아이스랜드(0.820)에 이어 0.817로 4위를 차지하고 있어 IT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전체 산악도시로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도시는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대부분은 넓고 깨끗한 호수를 끼고 있었으며, 자동차로 1시간가량 외곽으로 나가야 비로소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감상할 수 있었다.

바쁜 일정 속에 짬을 내어 찾아간 융프라우호, 티트리스 등 알프스 유명 산들은 궤도열차나 케이블카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훌륭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알프스 산 아래에서는 반팔차림으로 햇볕을 즐기는 가하면 산 정상에서는 때늦은 스키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4. 귀국 및 후기

촉박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제네바 국제공항에서 독일 프랑크푸

7) DAI : Digital Access Index로 ICT 접속 능력을 Infrastructure, Affordability, Knowledge, Quality, Usage등 5개로 분류하여 전체 DAI 지표를 작성하여 178개국별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르트를 거쳐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밀려들었지만 기내식으로 나온 빨간 고추장에 비벼 먹는 비빔밥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게 하였고, 간단한 입국절차 후 출발지인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었다.

지난 12일간의 영국과 스위스 방문일정을 돌이켜 보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두 나라의 각 기관들을 차질 없이 방문하여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관련 현황과 관심사항을 조금이나마 가름해 볼 수 있었고, 아울러 현지 문화 및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았다.

여러 부처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연수여서 첫날 타 부처의 사람들과의 어색함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오랜 동료와 같이 친숙함이 느껴졌고, 다른 연수과정에서도 다른 부처의 사람들이 골고루 함께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각 방문기관과의 사전약속이나 현지여행사 섭외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
끝.

디지털경제통계 정책연수를 다녀와서

통계청 서비스업통계과 송근영

1. 첫 해외연수

생각지도 않았던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공무원 생활 20여년을 보내면서 해외출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 적도 없으니 해외가 처음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 나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었지만 이번 연수를 통하여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경험을 얻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

사실 해외연수를 가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외국의 문화 및 환경, 식생활 등에 대한 적응 문제, 여행이 아닌 연수라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이 있었으나, 무엇보다 영어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 부담감은 인천을 떠나 파리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첫번째 공식 방문지역인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나마 혼자가 아니라 12명이 함께 가고, 그중에는 해외경험이 많고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몇 명 있다는 게 다소 위안이 되었으며, 그들 덕분에 현지에 가서는 생각보다 빨리 그곳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정이 끝날 쯤에는 연수기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공식 일정은 인천을 출발하여 파리→런던→베른→제네바→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10박 12일간으로 영국 및 스위스 통계청, 영국 런던의 무역산업부,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통신연합, 세계무역기구 등 기관 방문과 현지 문화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만족스러웠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가기 전에 기초 회화나 그곳의 업무내용, 문화, 지형 등에 대한 준비를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보다 효과적이고, 더욱 재미있는 연수가 되었을 텐데.....

그럼 12일간의 연수 소감을(말이 거의 안 통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겠지만) 나름대로 보고 느낀 대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공식 기관방문

◆ 회의장 분위기

우리의 회의장 모습은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 있고, 서로 간에 뭔지 모를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곳의 분위기는 많아 달랐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음료나 차를 마시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하여 서로간의 어색한 분위기를 없앤 다음 공식회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격이 많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한다면 보다 나은 의견이나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회의 진행은 그들의 업무내용을 주로 우리가 듣고 질문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간 우리 업무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곳의 업무 설명은 담당자별로 돌아가면서 하였는데 시종일관 밝고 자신 있는 표정이었다.

영국 통계청에서는 경제통계 담당부서가 웨일즈에 있는 관계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차가 밀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교통문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같다. 웨일즈 직원이 업무발표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발음이나 억양이 지금

까지 듣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영국이란 나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등 4지역의 연합국가니까 지역별로 고유한 사투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

스위스 통계청은 1860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1년 전에 캐나다에 용역을 주어 업무 프로세스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고 하였다. 넓은 사무실 공간과 전면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호수의 풍경이 인상 깊었다. 회의가 끝나고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는데 빵, 음료뿐 아니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까지 준비된 것을 보고 문화적인 차이를 새삼 느꼈다. 포도주 두 잔을 마셨는데 무척 부드럽고 맛이 있었다. 나중에 가이드에게 들었는데 통계청 있는 뉴사텔 주변 지역(로잔 등)은 포도가 유명하다고 한다, 포도 수확기에는 숙식을 제공하고 약 15만원 정도의 일당을 주는데 한국의 배낭여행 학생들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행비용을 벌여 간다고 한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통신연합)에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면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그곳 직원(미국인, 한국에서 2년 반 거주)을 만났을 때 무척 반가웠는데 이후 회의장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해졌다. 회의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IT산업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었는데 한국의 IT산업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깨가 으쓱거렸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에서는 그곳에서 근무한지 4년이 넘었다는 우리나라 여성이 기관 소개를 하였는데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으로서 자신 있게 근무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웠다.

◆ 기관방문 소감

< 업무에 대한 자신감 >

이번 연수를 통하여 얻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업무에 대한 약간의 자신감이다. 20여년간 통계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대해 고민한 적이 간혹 있었는데 이번 연수에서 영국과 스위스의 통계작성 내용을 들으면서-물론 한두가지 통계의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그들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도 조사방법, 조사협조 등에서 우리와 비슷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낄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우수한 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배울 점 또한 있었다.

그들은 우편조사 등 간접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회수율이나 조사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업무를 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조사대상처에서 정확한 응답을 기피하고, 항목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았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에서 조사대상 표본을 선정할 때 종사자수 규모를 기준으로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했다. 우리도 대부분의 사업체 통계에서 종사자수를 특성치로 표본을 추출하여 집계하고 있는데 그들의 집계 및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것이 아쉽다.

반면,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그들은 조사결과 분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듯이 보였으며, 새로운 통계를 개발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작성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통계인으로서의 자부심 >

우리나라에서의 통계업무는 업무환경 및 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통계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들은 통계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았다. 그들이 작성하는 통계가 우리보다 정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력 및 예산, 근무환경이 우리보다 좋다는 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의 15%에 불과한 스위스 통계청의 경우 500여명의 본부 인력이 큰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등 근무환경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영국 통계청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스위스와 비슷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그들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스스로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 업무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 및 개선,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잘 들을 수도 없었던 데다 시간도 짧아 회의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던 점이 무척 아쉽다. 그래도 나름대로 얻은 것도 많이 있다고 내 나름대로 자평해 본다.

3. 현지 문화체험

◆ 세계속의 한국

해외경험이 처음인 내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가장 놀랐던 것은 이들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무척 높았다는 사실이

다. 평소 TV 등을 통하여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체는 그 이상이었다. 런던을 가기위해 파리 드골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 탈 때 프랑스 승무원이 한국말로 '여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색하면서도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가 영국과 스위스의 명소를 현지체험하면서 한국어 안내문 및 방송, 처음 보는 외국사람으로부터의 한국 사람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기는 다니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 씩씩했다.

그리고 거리를 주행하는 현대(그곳에서는 현대를 현대이라고 부른다) 자동차나 도심 한복판에 삼성이라고 크게 쓰인 대형 간판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런던에 위치한 대영박물관에 별도로 설치된 한국관에서는 평소에는 잘 보지 않았던 우리의 고유문화를 관람하였는데 쩡한 감동(?)을 느꼈다.

이와 같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가장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호텔에서 특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무척 신경을 썼다.

◆ 안동이 한국을 대표한다?

영국에서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을 빌리자면, 몇년전 엘리자베스여왕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하였고 영국 TV에서는 이 장면을 크게 방영하였다 한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런 집에서 다소 누추하게 산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시청앞에서의 응원 모습과 도심의 빌딩 등을 보면서 한국의 저력과 발전된 모습을 알았다고 한다. 우리

의 전통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전된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계 및 통계청의 홍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알리느냐를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

◆ 지금이 불경기 맞나?

연수기간동안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 유명 관광지는 물론 거리, 식당, 쇼핑센터 등 웬만한 곳에는 으레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국내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 난리인데 ‘있는 사람들은 잘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많은 물건보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씩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나도 처음 외국나들이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들고 다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한번은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자주 구입하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상점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없다고 하면서 방금 전에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모두 사 갔다고 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까지 있었다. 한번은 누가 부탁한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들렀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점원이 그런 건 우리나라 제품이 제일 좋다며 사지 말라고 하는데 얼굴이 붉어져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서 외국 어느 곳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

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 가이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여행객이 가장 많았다가 한동안 우리나라가 많더니 요즘은 중국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현지에서 만난 동양인 중 절반은 중국인(대만인?)인 것 같았다. 지금도 한국 관광객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어떠했을까?

◆ 시내 지하철 요금이 4천 5백원 정도

처음 경유지인 프랑스 공항에 도착해서 첫 느낌은 물가 수준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 공항에서 음료수를 사 마셨는데 코카콜라 캔 하나가 5~6천원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럽의 물가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은 가기 전에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지하철 요금이 4~5천원(2.2파운드), 버스요금이 2천여원(1파운드), 말보르 담배 한갑이 만천원정도(5.2파운드), 식사 한번 하는데 일인당 보통 3만원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였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3배정도 높다고는 하지만 훨씬 높은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물론 대부분이 맞벌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그곳의 결혼한 남자들은 퇴근 후에는 대부분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6시 30분이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특히 스위스가 심함), 9시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10~11시면 대부분의 집에 불이 꺼진다고 하는데 실제 밤에 나가보니 젊은 사람들만 약간 보일 뿐 좀 쓸렁했다. 죽은 도시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가끔 호텔주변에 있는 주택가를 산책한 적이 있었는데 뜰에서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놀아주고 있는 아빠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무척 정겹고 아름답다고 느껴졌었는데, 특히 내가 반성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바쁜 업무, 술자리 등의 이유로 가족들과 같이 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었다.

◆ 무질서속에서의 질서

또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은 그들의 거리질서 모습이였다. 도로의 폭이 우리보다 좁고, 차들 간의 앞뒤 간격도 너무 짧아 거의 붙어 다닌다는 느낌까지 받았으며, 시민들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운전자는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같으면 소리를 지르며 별의별 욕을 다했을 텐데...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무질서(내가 생각할 때는)속에서도 10일간 머무는 동안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한번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수십번씩 듣던 클락션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었다.

런던 시내에서는 자전거는 인도로는 못 가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는데 차 앞에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으면 천천히 따라가거나 자전거를 비켜가는 광경이 종종 보였다. '빨리빨리'가 습관화 되어있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였다.

◆ 담배 피는 사람은 유럽으로

요즘 우리나라는 담배 피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듯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곳의 담배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은 우리와 비교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거리, 공원, 음식점 등 웬만한 곳에서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었는으며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는 항상 재떨이가 있었다. 건물 내에서도 웬만한 곳에는 흡연지역이 있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다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던 것 같다. 한번은 부부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담배를 물고 남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도 엽기적인(?) 장면이었다.

또 그곳에서는 담배꽂초를 거리 아무데나 버릴 수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에는 영락없이 담배꽂초가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청소하는)를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반드시 끊어야 하긴 하는데...

◆ 햇볕을 좋아하는 사람들

영국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자주 오는 나라로 유명하다. 다행히 연수기간동안 비를 만난 적은 없었는데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영국(스위스도 대체적으로)에서는 선글라스는 열심히 착용하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햇볕이 내려쬐면 그들이 없는 잔디에 누워서 책을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식당, 맥주집, 스넥코너 등에는 가게 앞 길가에 테이블을 설치하였는데 거기에 앉아 따가운 햇볕 아래서 음식을 먹었다.

물론 해수욕장 등에서는 일광욕을 즐기면서 피부를 검게 태우더라도

대체적으로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였다. 그래서 그런지 유럽인들은 자외선 등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는 흔치 않은 피부암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무임승차 가능,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전차나 버스를 탈 때 검표나 운전기사가 돈을 받지 않는다. 표를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하여 승차하면 된다. 그런데 아주 가끔 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임승차했다가 걸리면 요금의 40배를 물어야 한단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지 가이드 말에 의하면 무임승차로 3번까지 걸리면 정신병원에 보내진다고 한다.

반대로 영국은 버스기사가 직접 돈을 받으며 영수증까지 발급해 준다. 영국에서는 지하철을 underground, tube, metro 등으로 불리는데 10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한다. 시설은 우리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했으며,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약속시간에 늦을 경우 지하철 때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무마가 된다고 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의 의미로 사용하는 subway는 지하철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영국, 스위스 모두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고 요금도 받지 않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

◆ 맥주 맛은 정말 일품

저녁 식사 후에는 현지체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몇 사람과 함께 버스나 지하철을 시내나 인근 마을 구경을 하였다. 아이쇼핑도 하고 bar에 가서 맥주도 마셨는데 특이한 모습은 옆에 빈 테이블이 있는데도 홀이나 가게 앞에 서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도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마셨는데 그런대로 분위기가 괜찮았다.

맥주 맛은 그 지역에서 직접 만든 지역의 고유 맥주로 맛이 아주 좋았다. 안주는 거의 먹은 적이 없었다.(그곳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안주를 안 시켜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 한번은 옆 테이블에서 양주잔에 곡물 같은 것을 담아놓고 맛있게 먹고 있기에 우리도 시켜 먹었더니 보리를 구운 것이라고 한다. 맛은 그저 그런 것 같았다.

런던에서는 우리의 호프집과 비슷한 BRB(Bar Room Bar)라는 술집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의미는 잘 모르겠다. 가게마다 사람들이 넘쳤는데 음악소리와 크게 떠드는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 일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호텔 셔틀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기 나이가 무척 많으신 분이었는데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분이 손님들의 무거운 짐을 일일이 차에 싣고 또 내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들기에도 꽤 무거운 짐을. 그뿐 아니라 호텔 식당에서 커피 서비스, 박물관에서 안내 및 관리인, 관광지에서 검표원, 항공기 승무원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았다. 서양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랬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은 정년퇴직을 하고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아파트관리 등 종사하는 직종이 단순한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평균수명의 상승, 저출산 등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 제대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연수를 떠나기 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언어다. 외국이 처음인데다

한국어 외에는 제대로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나로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였다. 그러다가 거리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것을 보고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또한, 몇몇 사람과 가이드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시내나 인근 지역을 돌아보고, 쇼핑이나 맥주집을 몇 번 다닌 후에는 혼자서 쇼핑도 하고, 시내거리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공식회의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으나 통역하시는 분이 잘 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번 연수에서 한 가지 깨우친 것이 있다면 외국에 가면 그곳 말 잘 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다. 출발하기 전 여행 중에 꼭 필요한 일상적인 회화 몇 마디라도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편하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내가 본고 느낀 것을 순서 없이 정리해 보았는데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판단하였거나 빠트린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고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연수에서 여러 가지가 남들보다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이번 연수에 참여했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자부한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번과 같이 새롭다거나 흥미로움은 다소 줄어들겠지만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나은 연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끝으로 12일간의 짧지 않은 이번 연수기간을 통하여 좋은 인연을 맺게 된 통계청 직원은 물론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직원 분들께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연수 기회를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친다.

< 모르는 것은 결코 흉이 아니다. >

☺ 나인(nein)?

스위스 베른의 호텔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일하시는 분이 오더니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어 보길래

나는 "노(no)!"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나인(nein)?"이라고 재차 묻는다.

나는 "노(no)!"라고 다시 대답했다.

그녀 할말을 잃은 듯...

※ 스위스 베른은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nein은 독일어로 no라는 뜻이다.

그녀는 no를 다시 확인하는 뜻에서 nein하고 물은 것이고, 나는 nein이란 음료가 별도로 있는 줄 알고 no라고 한 것이었다.

☺ 워터(water)

에어프랑스를 타고 파리에서 런던을 가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승객에게 승무원이 어떤 음료수를 마시겠냐고 물어본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워러(water)!"
승무원 잘 이해를 하지 못한 듯 "what?"
물병을 가리키며 다시 "워러(water)!"
승무원은 그제야 이해를 하며 "oh! 워터(water)!"

혀 한번 굴러봤다가...
미국과 유럽의 영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
다.

☺ credit card

스위스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냐고 주인에게 물었
더니 주인이 못 알아듣는다.

나는 천천히 다시 말했다. "credit card!"

그래도 못 알아듣는 주인을 보고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러자 옆에 같이 간 분이 "비자(VISA)!"라고 말하자
주인이 그제야 알아듣고 "OK!"라고 대답한다.

혼자 물건 한번 사보려고 하다가 또 망신...

우리와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도 영어는 외국어 일 뿐이다.

☺ Bush

런던 시내 거리의 담장이나 현수막 등에

Bush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었는데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Bush가 뭘까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다른 단어를
못 봤기 때문에 bush가 뜻하는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알았다.

'bush'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을 뜻한다는 것을...

그럼 문장의 내용은 반전(反戰)? 영어 정말 어렵다!!!..... ㅠ.ㅠ

디지털 경제통계 작성기법 연수를 다녀와서

통계청 산업통계과 예상해

준비

친구를 만나든지 친척을 만나든지 혹은 직장 동료들 만나든지 대화 중에는 보통 해외 이야기가 포함되며 그때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경험담에 고개만 끄떡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웃이나 타 부처 직원이 해외에 다녀오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고 더구나 통계청에서 지자체 통계담당자 해외시찰단을 모집하는데 해외경험이 없는 직원을 찾기에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경우에는 씩씩한 마음이 들었다.

이러한 나에게 해외연수라 말로만 들었던 것이 실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우선 가족부터 반가워했다. 누구 남편은 어느 국가에 갔다가 무슨 선물 사왔다더라 누구 아빠는 어느 국가에 갔다가 무슨 장난감 사왔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기가 죽었던 우리가족이었다.

이렇게 해외경험이 처음인 나에게 준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우선 해외 갔다 온 동료, 친척, 이웃에 물어 물어 준비할 수 밖에 여행용 가방, 옷, 신발, 모자, 카메라 등을 준비하고 음식물은 캔김치, 캔깻잎, 튜브고추장 등을 준비했다.

연수 업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통계와 관련된 청내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개요, 용어해설, 각종 통계표에 대한 자료정리와 영문 자료를 준비하였다.

출발

인천공항에서 13:30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11:00에
집결하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출발은 청사옆 정류장에서 버스로 이동
하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약속된 정류장에 20분전에 도
착했는데 벌써 몇 명이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하는 순서를 살펴보니
역시 해외경험이 적을수록 일찍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우리나라의 관문답게 엄청난 규모였다. 연수기
간동안 유럽의 여러 비행장(파리의 샤를드골 공항, 영국 히드로공항,
스위스 제네바공항,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비해 손색이 없었다.

영국행 비행

영국행 비행은 당일 직항로 시간이 맞지 않아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
골 공항을 경유하여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으로 갔다. 비행시간은
프랑스까지 약 12시간 소요되었다.

- 13:30 출발 18: 25 도착(현지시각) - 시차 : 7시간

□ 시베리아 상공 :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 중에 바라본 시베리아 평원
러시아 땅인지 중국 땅인지는 모르지만 건물은 없고 직선으로 된
도로에 초소형태로 중간 중간 튀어 나온 형태의 시설물이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하다.

□ 유럽근처 상공 : 넓고 잘 정리된 농토로 한국의 등고선 형태의 농토
와는 비교되었다.

□ 프랑스 물가 :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서 음료수 3병을 구
입하면서 유로화로 계산하려고 5유로 지폐를 지불하였는데 해결되

지 않아 5유로 지폐 2장을 더 지불하여야 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콜라 1병에 약 5000~6000원 정도로 과약되어 물가는 한국의 약 8~10배로 짐작했다.

- LANDING CARD :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LANDING CARD를 작성하였는데 영국 공항에 도착할 때도 마찬가지로 LANDING CARD를 작성하여야 했다. 그런데 국가마다 LANDING CARD 양식이 서로 달라서 외국여행이 처음인 나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DTI(영국 무역산업부) 방문

영국에서의 첫 공식 방문기관인 DTI를 방문하였다. 이 기관은 한국의 산업자원부와 관련있는 부서로 산자부 직원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건물 입구에서 신분확인 및 방문증을 교부받아 회의에 참석하였다.

DTI에서 참석한 사람은 3명으로 국제협력 담당자, benchmarking study 담당자, 전자상거래 관련통계 담당자였다. 먼저 DTI에서 설명하고 산자부, 통계청 순으로 설명하였으며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회의과정에서 회의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통역 담당자를 배석시켰는데 통계전문용어에서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영국 DTI를 방문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DTI에서 참석한 사람 중 한사람인 전자상거래 관련통계 담당자(이름 : Ivan Bishop)를 알고 있었다. 그는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나와 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영국으로 가기 전에도 영국 DTI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회의 전 서로 소개를 하고난 후 회의가 끝날 무렵에도 Ivan Bishop과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 결국 회의가 끝난 후 『내가 한국에

서 메일을 보낸 예상해입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한국처럼 사람과 사람사이의 인정, 환대 같은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씩씩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은 영국 DTI 직원인 **Ivan Bishop**으로부터 받았던 Mail이다.

- Mail(2003.7.15)

Dear Mr Sang Hye Ye

I have been in contact with Michael Ahn from the Korean Institute for Electronic Commerce to discuss getting information on employment by enterprise size to enable us to weight the data we have collected from Korean businesses.

His most recent e-mail has sent the following, and suggested I contact you for further information, as I believe you have been working with Michael on this request.

- 중간 생략 -

Kind regards

Ivan Bishop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nited Kingdom

0044 207 215 1831

- Mail(2003.7.16)

Dear Sang-Hae Ye

Thank you for your very prompt response, and different breakdown by the requested sizeband.

What we really need is employment by enterprise size band, even if these data are a for a few years ago. Do you not have any figures for employment by enterprise size-band (I'd guess the answer might be no, but would welcome clarification!) ?

- Mail(2004.6.4)

Dear Mr Ye Sang-hae

I do remember, and thanks for your efforts at that tim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on the 9th.

Ivan

ONS(영국 통계청) 방문

ONS(영국 통계청) 방문은 개인적으로 외국의 통계기관으로는 첫 방문기관이 된다. ONS에서 6명이 나와서 각 담당별로 빔 프로젝트에 의해 설명을 하고 한국에서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회의 및 토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한국에서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영국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성장하였다는 것과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세삼 깨달았다.

또한 질의 응답시간에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의 Sample 추출 시 모집단 명부는 무엇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기업 등록청이나 국세청 자료 등 행정자료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세청의 사업체명부자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사업체관련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역할을 하는 통계조사인데…… 한국에서도 국세청자료 및 각 기관의 행정자료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국의 특징

□ 영국 건축물 : 영국 런던에서 시내를 바라본 영국의 특징은 우선 오래된 건축물에서 나타난다. 시내에서 어디를 봐도 현대식 고층 아파트나 빌딩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모두가 100년 내지 200년 이상 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내장재나 자동차, 도로, 사람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 마치 역사를 품에 안고 가는 느낌이다.

영국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는 노력은 런던의 건축물에서 모두 읽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영 박물관을 보면 외국의 역사까지 지키는 노력에 세삼 놀란다. 정부대전청사에서 바라보는 둔산 시가지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통계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말이 있다. 통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다고 한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는 먼 미래에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에 과거 100년전의 역사를 만들 수 없듯이 현재에 과거 100년전의 통계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에 현재의 각종 사회 경제적 현상을 통계로 만들어 자료를 축적하면 역사가 되고 훌륭한 역사는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확한 통계는 정확한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통계는 미래를 희미하게 나타낼 것이다.

영국에서 역사를 지키는 노력만큼 통계에서도 역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 영국 도로체계 : 자동차 진행방향이나 운전석이 한국과는 반대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영국을 갔다 온 직원에게서 들은 바로는 도로에서 큰 혼란은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건널목에서 차도를 건널 때 좌측을 보고 차가 없으면 건너던 버릇 때문에 당황한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좌측을 보고 차가 없어 건너는데 우측에서 차가 오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널목 마다 외국인을 위해인지 look right 라고 적혀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영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생각할 때 특히 조심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 표지판 : 시내의 건물에 TO LET(세놓음)이라는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TO 와 LET 사이에 I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TOILET (화장실)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광고지 영문표기 : 길에서 받은 술집 광고 전단지의 영문표기

[Admission : 3 pound B4 11:00 pm]

BEFORE를 B4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고지를 읽는데 주의

□ 영국 물가 : 영국의 물가를 짐작할 수 있는 몇몇 가격을 소개한다.

※ 환율 : 1파운드 약 2200원

- 지하철 요금 : 2.2 파운드 - 2층버스 요금 : 1.0 파운드
- 담배(말보르) : 5.2 파운드 - 한식(김치찌개) : 6.5 파운드
- 맥주1컵(칼스버그) : 2.3파운드 - 흑맥주(기네스) : 2.9 파운드

스위스행 비행

영국에서 스위스로의 이동은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을 출발 영국 항공으로 스위스의 쥐리히 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사 버스로 스위스의 수도 베른시내의 호텔로 이동하였다. 스위스에서의 첫 느낌은 영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연과 조화된 깨끗함 그 자체였다. 영국에서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만큼 스위스는 자연을 지키고 자연과 함께 생활한다는 느낌이다.

SFSO(스위스 통계청) 방문

스위스 통계청은 뉴사텔에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일행은 스위스의 제네바에 주재중인 안정임 과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회의진행 통역에서 스위스 문화 등에 대한 설명 …… 스위스 통계청은 최근에 본청의 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는 설명이 있었다. 한국의 통계청 본청의 분석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ITU(국제통신연합) 및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방문

ITU 및 WIPO는 국제기구로 모두 제네바시 중심가의 국제기구가 모여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다.

ITU에서 설명 담당자중 한사람은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또 한사람은 프랑스인으로 2002 월드컵 경기 때 [프랑스:세네갈] 경기의 응원으로 한국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멀리 유럽에 왔지만 결코 멀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스위스의 특징

□ 베른시내 교통 : 한 노선의 도로위에 궤도 전차, 무궤도 전차, 2단 버스, 승용차등이 복합적으로 운행

□ 전차 승하차 : 전차 승차표를 구입하여 승차한 뒤에는 승차표 검표나 승차표 회수가 없음. 만약 수시 일제검표에서 적발될시 40배 벌금 징수

한번은 투숙한 호텔에서 베른시내로 가기 위해 전차를 탔는데 전차가 바로 도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고 탔다. 우리는 영어 몇 단어, 몸짓, 발짓을 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으니 요금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한 승객은 다음 정류장에서 기관사에게 지불하면 된다고 하고 또 한 승객은 종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요금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한다. 그러는 중에 한 승객이 “north korea에서 왔느냐” 고 묻기에 영겁결에 “예스” 답해 당황하기도 했다. (다시 "south korea" 로 답했지만 사실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일행이 투숙한 호텔근처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일행은 갈등을 느끼며 그래도 한국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없어 종점까지 가서 기관사에게 전차요금을 지불하였다.

□ 베른시내 상점 영업 마감시간

·[월~금 : 18:30] ·[토 : 16:00] ·[일 : 21:00]

나는 궁금하여 가이드에게 질문하였다.

“맛벌이 부부는 쇼핑을 언제 합니까?”

☞ “일요일에 일주일 분을 쇼핑합니다.”

“그럼 갑자기 화요일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 “항상 사전예약을 하여 갑자기 손님이 오는 일이 없습니다.”

우문에 현답일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예약문화가 정착이 안 된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24시간 편의점, 24시간 대형할인매장이 즐비한 우리나라와는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개인 비밀구좌 개설 : 95,000프랑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이자가 없고 보관료를 부담하여야함

□ 몽블랑 등정 관광도로 : 전열장치로 겨울에도 차량운행 가능

□ 스위스 외국인 고용 : 1년 8개월 단위로 고용허가증 발급하여 고용

□ 스위스 시별 특징 : 경찰복장이 서로 다름, 사용언어 표지판이 다름

- 베른시 : 독일어 사용 - 뉴사텔, 로잔, 제네바 : 프랑스어 사용

□ 스위스 전력 : 전력은 아주 풍부하여 남는다.

대부분 수력발전이며 원자력은 전체 3기 중 2기만 가동하며 화력발전소는 없다.

□ 스위스 물가 : 스위스의 물가를 짐작할 수 있는 몇몇 가격을 소개한다. ※ 환율 : 1 스위스 프랑 약 950원

- 전차요금 : 2.6 프랑 - 아이스크림 : 2.5 프랑

- 담배(말보르) : 5.2 프랑

- 제네바시 월세 : 18평 기준 약 1,500 프랑

□ 알프스산 관광용 터널 및 케이블카 공사

- 융플라워 관광용 철로 및 터널 공사 : 약 100년전

- 티틀리스 관광용 케이블카 공사 : 약 80년전

디지털경제통계 작성기법연구 정책연수 후기

통계청 통계연구과 김한식

연수에 앞서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관한 정책기관(산업자원부) 담당자들과 이들 산업의 정책에 없어서는 안될 관련 통계에 관여하는 직원(통계청)이 함께 유럽의 주요국가들의 현황을 볼 수 있다는 기회는 분명 양 기관의 향후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통계청에서 참가한 연수단 면면이 과거 그리고 현재 유사업무에 다년간 근무하였고 또한 전문성이 풍부한 단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부응하여 자긍심으로 가득찬 마음으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를 떠나면서 초기 생각은 업무적으로는 과연 방문국가 기관에서 어떠한 지식을 얻을까 또는 무엇을 전달하고 올 까, 현지 체험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관광자원, 생활모습 등) 우리보다 상대국이 나은점은 무엇이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들에 비해 나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까 등 깊은 상념에 잠기어 첫 연수 국가인 영국을 향해 출발하였다(6월 8일).

영국에서의 연수체험

첫 유럽 땅을 밟게 된 중간 기착지 파리 드골공항을 거쳐 프랑스 항공(Air France)편을 이용하여 도착한 런던 히드로(Heathrow) 공항에서의 입국 수속시 지루한 업무처리 및 근무자의 거만한 자세, 허술한 처리로 나를 포함한 일부단원들의 소화물이 도착되지 않아 난감하였던 일, 시간이 늦어 햄버거로 저녁을 마친 일, 일부단원들의 단체 활동에 벗어난 개인행동, 우리와 런던에서 같이 지낼 안내자의 불친절을 뒤로한 채 연수가 시작되었다.

6월 9일 DTI 방문은 프랑스에서 짐이 도착하지 않아(업무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 준비가 안 되어 방문을 할 수가 없었으며 일부직원만 참석하였다.

6월 10일 오전 9시 15분에서 12시 45분까지 영국통계기관(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www.statistics.gov.uk)을 방문하여 본격적인 연수가 시작되었으며 독립된 2개 빌딩으로 구성된 방대한 청사와 6명이나 참석하여 각자 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정의 있는 업무소개를 들 수 있었다.(1996년 4월 1일 독립 행정청으로 발족하였으며 사회조사를 위한 1000명의 직원을 포함하여 London, Newport, Southport, Titchfield에 3,800명의 직원이 근무).

주요 토의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의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n Society and Economy)」에 대한 제목으로 이하 협의사항은 작성체제 및 구조, 영국경제에서의 ICT(산출, 투자, 이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사회측정, e-business/e-commerce의 측정 현황(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에의 접근(국제적 기준, 기업의 생산성분석) 등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면

작성체제 및 구조부문에서는 정보기술과 개인, 정보기술과 기업, 공급, 투자, 생산, 가격 등의 지표와 국민계정에서의 위치, 새로운 경제(New Economy)의 영향 분석 등 ONS에서 목표로 하는 작성범위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영국경제에서 ICT(산출, 투자, 이용)와 시장경계(범위)에서의 근본적 변화(매매자들의 세계화), 새로운 재화와 용역에로의 접근, 상호작용과 작동방법에서의 변화(기업내외 기업간, 영업활동과 혁신), 소비자 공급자관계의 재정립(변화하는 힘의 균형) 등 새로운 정보 경제와 IT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급속히 하락하는 가격의 처리문제, 헤도닉 방법), CT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컴퓨터 서비스(Computer Services)’의 측정(한정적인 문제, 변화한 부문),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내외적으로 얼마나 소비되는가, 얼마나 자본화가 이루어지는가) 등 IT산업의 기반과 측정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보사회측정에서는 개인에 대한 자료 수집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하였는데 이를 위한 기초조사명은 「National Statistics Omnibus Survey」으로 2000년부터 16세 이상 성인 1,8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연 4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자료수집 내용을 보면 첫째 가정용 PC와 디지털 TV를 포함한 ICT 장비의 소유 현황, 둘째 인터넷 접속 방법, 셋째 인터넷 접속 시간 빈도수, 넷째 인터넷 접속 장비 및 장소, 다섯째 e-Government를 포함한 인터넷 접속 목적, 여섯째 인터넷쇼핑, 일곱째 인터넷 미사용 사유, 여덟째 미래의 사용 전망 등이다. 이들의 결과는 NS웨사이트에 요약과 통계표를 제공하고 앞으로는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계획이다.

e-business/e-commerce의 측정현황(기업을 대상으로)은 2000년 기준조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주내용은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9000개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경제부문을 대표하며, e-commerce를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기준조사는 부수적으로 종사자 0~9인 사업장을 확대하였으며 ICT 사용관한 사용내역도 확대하여 새로운 기술, 영업단계의 통합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럽의 e-business/e-commerce의 측정에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별로 소개하였다. 첫째 Eurostat에서 측정하는 e-commerce와 EU에서의 ICT, 둘째 E-Europe의 벤처마킹 지표, 셋째 유럽의회에서 통과한 ICT 규정, 넷째 2005년 조사의 의의, 고객과 데이터 이용자대해 무게를 더한 질문지, 다섯째 향후 Eurostate의 자료수집은 현장조사용 질문지에 기초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등.

또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 있어서 주요 기술적 관심사항은 품질에 관한 내용으로 첫째 현장에서 즉시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확인에서의 문제. 둘째 몇몇 질의/개념 정의를 내리는데 따른 어려움, 셋째 몇몇 결과는 질의 항목의 변화 때문에 연간으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 넷째 e-commerce의 실제가치 이상의 변화율, 다섯째 가끔 사업체에서의 추정(5~10%) 등을 들었다. 이밖에 인터넷 접속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는 매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통계조사, 둘째 동등한 회비납부자들에 관한 변화의 측정, 셋째 증가하는 추세 현황 등을 들었다.

정책에의 접근(국제적 기준, 기업의 생산성분석) 부문에서는 기반구축(기술, 투자, 법규의 구조), 준비상황, 이용현황효과(회사, 가구, 정부에서 변화)등 설명하였고 이어서 e-Economy의 기초적인 구조, 형태를 설명(영국에서의 2002년 e-commerce 형태, 모습)하였다. 그밖에 기업에 대한 영향분석(거시적 영향, 미시적 접근), 조사결과의 활용(생산성, 기업혁신

효과, 시자에 미치는 효과 등), 서비스업 생산성 효과, 가격변화 효과 등과 2004년에 행하고자하는 계획(e-commerce 조사, 가구에서의 사용, ICT 투자, ICT 소프트웨어, e-commerce 영향 등) 등을 들었다.

이러한 일련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이 작성한 통계를 이용하여 자국의 현황을 외국인에게 일목요원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세심한 준비, 깊이 있는 국가경제 특히 ICT관련 영향분석 등 깊이 있는 현상 파악에 들으면서 내 스스로 반성할 점이 많음을 느꼈다.

여하튼 같은 통계인으로써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고 관련과를 방문하여 통계 작성을 수행하는 태도, 자료수집 현황, 영국에서도 최근에 개발한 서비스업지수 등 관심사항을 좀더 파악하고 싶은 심정을 뒤로한 채 12시 30분에 토의를 미치고 건물 앞에서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떠나야만 했다.

현지체험은 당일 오후에 있었던 버킹검궁(Buckingham Palace) 앞에서의 근위병 교대식 관람, 다우닝가(Downing Street), 트라팔가광장(Trafalgar Square), 박물관(The British Museum, National Gallery, The Natural History Museum),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하이드파크(Hyde Park), 타임즈강, 국회의사당, 성공회 본당, 웨스트민스터 수도원(Westminster Abbey), 나이팅게일이 근무하였다는 St.Thomas Hospital, 런던 시가지를 천천히 관람할 수 있는 전체 분위기와 달리 설치되어있는 런던아이, 워털러 브리지(영화 애수의 배경이 된 다리로 유명) 등의 런던 시내 관광을 하였으며 다음날인 6월 11일에는 런던에서 관광버스로 1시간 반 거리인 윈저성(Windsor Castle, 주말에 여왕과 식구들이 모이는 곳), 옥스퍼드(Oxford) 시내의 대학, 박물관(Ashmolean Museum), 대학 교회들(University Church of St Mary the Virgin, Christ Church), 구시가지 등을 두루 방문하였다.

현지체험에서 느낀점은 첫째 중세의 건축양식 모습과 좁은 거리의 단조로움, 무성한 가로수 및 잔디광장 등 역사의 흔적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이한 모습인 것 같았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 계속하여 가는 곳마다 접할 수 있었다.

둘째 대중교통에 관한 내용으로 질서정연한 교통상황이 인상적이었으며 운전석이 우리와 달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특이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는 과거에 마차를 운영하면서 오른손으로 말 채찍을 할 때 뒤에 있는 탑승자의 불편을 덜하고자 위치를 그렇게 한 것이라 소개해주었다, 이에 택시의 경우 공히 마차의 형태와 비슷한 왜곤형(wagon, 영국에서는 estate-car)이며 운전기사들이 한결같이 민음이 가보였고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할 안하려고 운전석과 손님 좌석 간에 칸막이(신분상의 구분이라고도 함)가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그밖에 2층, 굴절버스인 시내버스는 탑승시의 전망, 비좁은 거리에서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배려가 아닌가 싶다.

셋째 거리의 시민들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 직장에서 근무 중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눈에 띄었으나 안내자의 설명으로는 일본,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더욱 많이 와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테임즈강의 오염된 강물은 산업혁명의 발원지를 알려주려는 듯한 모습이었고, 석회석에 의한 회색빛의 쓸모없는 강물, 거리의 지저분한 모습 등의 부정적인면이 있는가 하면, 잘 관리된 시골의 목장과 초원 및 나무가 뺨뺨이 우거진 숲(농가가 보이질 않을 정도), 산이 안 보이는 넓은 평원, 중세의 생활상을 간직한 중세풍의 건물과 석회석으로 조각된 조형물 등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영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스위스에서 의 연수 체험

6월 12일 12시 5분 영국항공(British Airways)편으로 런던 히드로(Heathrow) 공항을 출발하여 14시 50분에 스위스 쥘리히(Zurich)에 도착하였다. 이곳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관광 국가답게 입국수속이 간단하였으며 맑은 하늘과 공기는 마치 우리나라의 가을을 연상케 하였다. 공항에서 잠시 머문 후 관광버스로 2시간 30분 정도 걸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 조그마한 100년이 넘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노이샤텔에 있는 스위스통계기관(SFSO, Swiss Fderal Statistical Office, 470명 근무) 방문에서는 2개 빌딩으로 구성된 방대한 청사(뉴샤텔에서는 제일 높고 깨끗한 건물인 듯 하다)와 담당직원 4명이 참석하여 각자 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성의 있는 업무소개를 들을 수 있었다.

주요 토의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스위스 연방통계기관의 조직소개, 경제통계부문의 조직, 거시경제와 스위스경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민계정 담당부서, 거시경제의 분석, 국민계정의 질적향상 경제정책의 분석 등을 다루는 경제구조 및 경기분석 담당부서, 경제와 사회문제 간 가교역할로서의 소득 분석을 담당하는 사회경제 분석 담당부서, 사회변화의 정책적 배경을 다루는 정치·문화·미디어, 사회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부서 등의 부서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받았으며, 스위스 정보 사회의 지표들(인구 및 가구, 기업, 공공행정, 교육, 기술 및 과학, ICT 부문 등), 유럽의 프로젝트인 SEAMATE (Socio-Economic Analysis and Macro-Modelling of Adapting to ICT in Europe) 참가 내용 등에 관한 설명과 토의를 하였다.

6월 16일 14시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방문에서의 주요 토의사항은 ITU의 통계활동으로서 ICT 지표에 관한 자료수집(통계 매개체, 국가통계기관), 국제관계, 통계자료 보급 유형, ICT와 2000년대 UN의 통계개발 목표 및 통계의 주요 기구, 발간물 등 기능과 관련회의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2003년 세계 통신 개발 보고서에 수록된 ITU 지표에 대한 DAI(Digital Access Index)의 측정방법(INFRASTRUCTURE, AFFORDABILITY, KNOWLEDGE, QUALITY, USAGE 부문별 산출 내용), 결과(한국은 세계 4위)에 대해 들었다.

그밖에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기관을 방문하여 ICT 관련 특허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어서 WTO를 방문하였다.

스위스에서 현지체험은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 시내 산책, 알프스의 융프라우(Jungfrauioch, 6월 13일) 등정, 세계 유일의 회전 케이블카가 있는 티틀리스(Titlis) 등정과 루체른(Luzern) 시가지 관람(6월 14일,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목조다리인 카멜교, 스위스 군인의 용맹성을 나타낸 빈사의 사자상, 호수), 제네바 시가지 구경(6월 16일, 레만호수 유람선 탑승, 쉬옹(Chillon)성, 제네바 대학 등), 몽블랑(Mont Blanc) 등정(6월 17일) 등을 통해 현지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스위스 현지체험에서의 느낀 점은 관광 국가답게 런던이나 파리와 달리 입국절차가 간단하고 마지막날 몽블랑을 가기위해 프랑스 국경을 통과할 때도 일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의 검문처럼 간단하였다. 우리가 본 스위스는 신이 준 자연풍광의 복된 관광자원, 중세의 문화유적,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기슭의 민가, 호수, 마년설 등과 잘 어우러진 하나의 풍경화와 같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벽면과 같이 유사한 넓은 공간만

있으면 다양한 낙서가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 자연가 인간의 여유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듯한 모습이였다. 또한 운전자가 약간의 음주나 안전벨트를 안 해도 통용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낮에도 헤드라이트를 대부분 키고 다닌다는 점이 특이한 모습이였다.

그밖에 산이 높아 차 안에서 허리를 최대한 굽혀도 보이질 않는 산 정상, 길거리에는 런던과 달리 보이질 않는 경찰(안내자의 설명에 의하면 고발정신이 강하여 일반 시민이 불법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하여 순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대부분의 길가에는 일반 광고물 대신 스위스에서 자랑하는 시계와 군대용 다목적 칼 광고물이 가득하여 스위스의 경제 발전에 관광산업 이외에 이들 특정제품이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우리도 외국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품은 무엇일까 하는 반문을 해보았다.

연수를 마무리하며

다소 짧은 연수를 마쳐야 했던 아쉬움과 빨리 귀국하여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제네바 공항을 출발(6월 18일 11시 5분)하였다. 귀국길은 제네바에서 독일항공(Lufthansa)편을 이용하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Frankfurt, 중간 환승 공항)을 거쳐 반가운 우리 비행기인 KAL 항공편으로 우리말의 안내와 우리나라 신문을 읽으면서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6월 19 13시) 하였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영국 통계기관에서 2시간이 넘는 대등한 위치에서의 진지한 토론 및 통계자료의 분석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최근의 통계기관 동향소개와 스위스에서 그들이 작성하는 통계와 국민계정의 연계를 통해 기존통계 및 새로운 통계생산의 재검토 과정, 조직개편 방향 등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수의 수행과정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연수자들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적은 예산으로 많은 체험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다수가 여러 곳을 경험하여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해당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동적인 우리 사회 모습, 급속히 늘어나는 관광객 및 현지 한국어 안내, 삼성,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의 홍보물 등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연수한 결과는 기대이상으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단기방문 연수 기회를 마련해준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수준비에 진땀을 흘리신 모든 분의 고마움을 새기며 무사히 다녀온 12명의 우리 연수단원과 함께 좋은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였으면 한다.

디지털 경제통계 작성기법 연수를 다녀와서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 박현중

처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공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도되는 것인지 많이 망설여졌다.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2주일 가까이 자리를 비워도 되는지 걱정이 앞섰다고나 해야겠다. 그래서인지 처음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많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프랑스를 경유할 때도 프랑스의 공항 검색이 강화되었는지 많은 시달림을 당하면서 영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국에 도착한 순간 프랑스에서 짐이 항공기에 실어지지 않아 그날 한참을 기다리다 짐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영국 상무관이시던 이윤호 과장님과 일처리를 잘 하시던 몇 분의 도움으로 일단 다음날 찾기로 하고 호텔로 들어갔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 인지 아니면 여행사에서 누락시켰는지 저녁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음날 바로 우리 나라의 산자부에 해당하는 영국의 DTI를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양복이 없었던 것이다. 같이 간 이용희 주무관은 기초적인 여성용품 조차도 없어 이윤호 상무관님이 집으로 초대하여 이러한 간단한 물품들을 챙겨주셨다. 우리에게 대해 깊이 챙겨주신 이윤호 상무관님께 많은 감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겨우 간단한 차림으로 DTI를 방문하였는데 DTI는 우리 나라처럼 청사라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세곳에 나뉘어져 있으며 건물 자체도 거리 상점가에 존재하였다. 이 나라에는 당연히 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정부건물들은 대체로 모여있는 데다 경찰들이 이 곳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과는 달리 어찌면 경비가 허술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에 조금은 놀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DTI 직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도 또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다. 직원이 셋이 있었는데 다른 두 사람보다 직책상 높은 사람이 손님들을 위해 직접 커피나 과자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참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나의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새삼스레 하게 된다.

영국에서 3일정도 있었는데 영국의 거리는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고 공원은 시민들을 위해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템즈강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녹지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전통적인 건물들을 조금은 가꾸고 현대식을 변형시켜 내보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저 이 건물 새로 지었는구나 하는 인상만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은 전통적인 면을 가미한다면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영국 곳곳에 가꾸어진 정원이나 녹지를 볼 때면 녹지 공간이 부족한 서울이라는 도시가 삭막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영국이 우리 나라 남북한을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지만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70%가 산지인 반면 영국은 거의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넓은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다음 방문지였던 스위스를 생각하면 우리의 토지활용이 잘못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나라 전체적으로 거의 산지로 구성된 스위스는 그 국토를 잘 가꾸어 최고의 자연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내려 스위스를 본 느낌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을 갔을 때 몇몇 곳에서 공사는 하고 있었지만, 참 도시가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영국과 비슷하게 스위스는 오후 6시 30분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사람들도 집에 들어간 것처럼 호프집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특히 베른 시내에서 도보로 호텔까지 거의 40분정도 오는 동안 본 사람들 수는 손으로 꼽아 볼 정도이며 오후 10시 정도 되었다고는 하지만 불도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며 다들 어떻게 사는 지 많이 궁금했다.

베른에 묵는 동안 융프라우와 티틀리스를 케이블카 등을 이용하여 등정하였는데 이것이 100년에 남짓하여 설치되었다는 말이 놀랍기도 하였다. 돌산 사이로 구멍을 내고 여기에 10,000피트가 넘는 곳까지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자연환경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위스인들이 정성스런 가꿈의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나라의 산을 보면 개발했다하면 모두 민둥산이 되어버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교차되었다. 스위스의 산, 천, 풀 등이 모두 철저히 가꾸어진 것이 라면 우리도 유사하게 정성어린 가꿈의 과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3일정도를 제네바에서 묵게 되었다. 제네바는 정말로 국제도시라는 말 자체가 느껴질 정도로 국제기구들이 한 거리를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여기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의 영향이 높은 베른과는 다르게 불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의 영향이 깊은 도시이다. 역시나 전에 방문했던 뉴사텔과도 연결된 레만호는 가이드나 다른 분들의 말마따나 거대한 바다처럼 느껴졌다. 수평선이 보이는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여러 기관을 방문했는데 WTO는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에 내부를 조금 고쳐서 사용하는 것 같았다. 이번 방문중에 아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된 기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다시금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기관방문이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영어공부라는 것이 쉽지만은 아닌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의 공식적인 일정은 끝나고 귀국을 앞두고 세 개 부처 사람들로 구성되어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 연수단이 어느새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면들이 연수단을 더 단단하게 묶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천공항에 내려서서는 영국에서의 일을 다시 당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스레 짐을 찾기 위해 기다렸던 것을 빼고는 모두 즐겁고 보람찬 연수일정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 같았다. 다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겠지만 모두 2주 가까이 함께 한 우리 연수단은 정말로 좋은 연수단이었던다고 여겨진다.

이번 연수를 통해 각 나라들은 그 나름대로 자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단순한 다른 나라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좋은 점들을 가꾸고 키워 이를 세계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내가 느낀 그들의 힘이었다. 우리도 단순하게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의 것으로 걸러내야 할 것이 생각된다.

IV. 참고자료 (토의발표 영문)

- o 수집자료는 정책연수 방문기관에서의 양자간 회의 자료로서 내용이 방대하여 보고서에는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찬일 (charlie88@nso.go.kr)

< 회의자료 목록 >

1. Digital Economy Statistics in Korea
2. Information Technology in Society & Economy
3. Business use of ICTs in UK
4. ITU statistical activities
5. Indicators on the Swiss information society